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 방재저널

— 2026  
3



권두언

이상권 한국방재협회 회장

특 집

산 불

회원광장

'26년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간담회 활동



한국방재협회

KDPA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 봄철

##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산불

해빙기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2026. 3.1. - 2026. 5. 31.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iOS용 QR코드



안드로이드용 QR코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 앱

▶ 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다운 받아 신고하세요.

## 한국방재협회 QR코드 소개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  
교육, 재난안전신기술, 협회 소식 등 안내

### 협회 주요업무

#### 교육

교육과정, 일정, 수강신청,  
교육게시판 안내



#### 회원광장

자격&가입안내, 회원현황,  
회원관리규정

#### 신기술

제도소개, 신청·평가 안내,  
지정현황 제공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소개, 민원업무안내,  
등록현황 제공

### 카톡채널 & 커뮤니티

카카오톡 채널  
협회 소식 안내



#### 방재안전직 커뮤니티

방재소식, 정책제안,  
자료실 등 정보제공

# CONTENTS

2026.03 | Vol. 28 / No.2

제 126호



**발행인** 이 상 권  
**발행처** 한국방재협회  
 우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성내동 447-9)  
**담당자** 김진호 팀장  
**T E L** 02. 3472. 8062~3  
**F A X** 02. 3472. 8064  
**발행일** 2026년 03월 25일  
**인쇄처** (주)가나씨앤피 02. 2272. 1143

### 편집위원회

**위원장** :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 임재열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차상화 행정안전부 과장  
 최병진 (주)이산 부사장  
**간사** :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위원** : 김종호 울산대학교 교수  
 나우영 동아대학교 교수  
 박승주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유현 (주)유신 부장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  
 송주일 (주)부린 연구소장  
 송창근 인천대학교 교수  
 신주영 국민대학교 교수  
 이재근 극동엔지니어링 이사  
 임경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전창현 고려대학교 교수  
**고문** : 임수근 前YTN 부국장



## 04 권두언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방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 이상권

## 07 특집

### 〈산불〉

- 01 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 가동
- 02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03 경남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2차 피해 예방 나서
- 04 산림청, 대도시 주요 산 101개소 산불진화 전략 현행화
- 05 전국 산불예방 합동 기동단속 돌입... 산림 분야 전 기관 산불발생 선제적 대응
- 06 광역 방제기 활용, 대형 산불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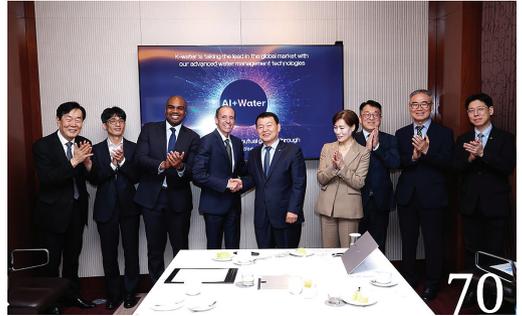
## 21 브리핑 & 뉴스

### 〈정책〉

- 01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빡'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 02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 03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 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막는다
- 04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05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6 기상청, 「2025 지진연보」 발간



49



70

## 44 <지자체>

- 01 제5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새출발!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 '동행' 시작
- 02 전북자치도, 300억 투입 '사방사업 속도전'... 우기 전 80% 완료 목표
- 03 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추진
- 04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보장
- 05 서울시, 포트홀 27% 감소... 고강성·고내구성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 입증
- 06 부산광역시, "암남동 태풍 피해 반복 더는 없어야"... '암남동 방재호안' 2단계 착공
- 07 부산 재난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부산 안전 ON' 누리집 시범운영
- 08 경상남도, 극한 재난 대응...경남형 재난 안전마을 조성한다!

## 66 <회원사>

- 01 LH, 'AI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 확대... 옹벽·사면 안전강화
- 02 다보스포럼에서 '협력 신호탄' 한국수자원공사, OpenAI와 AI 물관리 모색

## 71 인터뷰

재난 대응 핵심, 복구가 아닌 예방 | 김병렬

## 77 회원광장

01 '26년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간담회 활동 | 한국방재협회 편집위원회

## 79 스토리

손녀와 쑥쑥이 | 윤순섭  
일본 4,100km 종단 열차여행을 다녀와서 | 엄관용

## 89 기술

주조식 지압판과 팽이판을 이용한 앵커 사면공법

“ 재난안전은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방재협회가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두언

#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방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권

한국방재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재협회 회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저를 한국방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한국방재협회는 그동안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국내 재난안전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 협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극심한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선박 침몰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역량 또한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난환경은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 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재난안전은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방재협회가 재난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방재협회는 기후변화와 AI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국민안전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

“**앞으로의 재난환경은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학계·산업계·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및 예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관리 체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둘째, 협회 회원과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의 전문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 책 건의, 정보 제공, 기술 교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 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협회가 회원 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동반자 조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재난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 키겠습니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 을 체계화하고, 최신 기술과 사례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 인

프라를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재난관리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 성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회의 역할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 도시재난, 첨단기술 기반 재난 등 미래형 재난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 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기술의 활용 가능 성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재난환경에 능 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인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주어진 3년의 임기 동안 협회가 회원 여러 분께 더욱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재 가족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방재협회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민간 방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방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특집 ]

# 산 불

- 01 | 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 가동
- 02 |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03 | 경남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2차 피해 예방 나서
- 04 | 산림청, 대도시 주요 산 101개소 산불진화 전략 현행화
- 05 | 전국 산불예방 합동 기동단속 돌입...  
산림 분야 전 기관 산불발생 선제적 대응
- 06 | 광역 방제기 활용, 대형 산불 차단한다



# 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 가동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정부는 산불 위험이 본격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 또는 119,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국무회의, 2.10.)을 강조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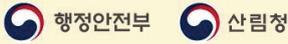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 (기후부)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 및 중요시설 보호
- ◊ (지방정부) 불법 소각 및 부주의 행위 단속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점검과 철저한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위험이 본격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 또는 119,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DPA**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 국민행동요령

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

## Ready · 준비



### 산불조심기간 동안 Ready!

- ☑ 내 집 근처 발화요인(나뭇잎, 솔방울, 수풀 등) 사전 제거 하기
- ☑ 산불 발생시 연무, 방향각각 상실 등으로 대피로 파악이 곤란한 상황 고려, 평소 대피장소 및 이동방법(대피로) 숙지
- ☑ 우리 마을 “함께 대피” 이웃 알아두기
- ☑ 산불 예방 및 대피 홍보 영상 시청(주변 어르신에게 알려주기)
- ☑ 산불 예방 및 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 우리 지역 인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Ready!

- ☑ 비상가방 준비 하기  
N95 마스크, 손전등 및 예비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휴대폰 불통시 긴급 재난방송 수신), 비상 식량·식수, 개인 약품\*과 구급함(만성질환, 노약자) 등  
\* 약을 가지러 되돌아가거나, 준비로 대피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기기
- ☑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
- ☑ 우리 마을 “함께 대피” 이웃 연락하기

## Set · 실행대기



- ☑ 사전대피 권고가 되었다면 적극 동참하기
  - 우리 마을 주변에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다면 사전대피
  - 마을 진입로가 1개여서 산불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면 사전대피
- ☑ 긴급재난문자, 안내방송 잘 확인하기
- ☑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적극 사전대피하기



## Go · 즉시실행



- ☑ “즉시 대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
  - 불길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짐만 챙겨 신속히 이동
- ☑ 대피 중 집에 두고 온 물건 때문에 되돌아 가지 않기
- ☑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하기
- ☑ 안내받은 대피소로 이동 중 불길이 보인다면 대피소로 가지 않기
- ☑ 특정 대피소가 아닌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주변에 산림이 적은 넓은 개활지로 이동하고 계곡부는 피하기
- ☑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기

#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위험 증가,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 동참 호소



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ライター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등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

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KDPA**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산림청 산불방지과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소방청 대응총괄과



# 경남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2차 피해 예방 나서

민가, 공공시설 등 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긴급진단 실시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영향구역 100헥타르(이하 ha) 이상의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소)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 (발생일시) 2026.2.21. 21:14(추정), (산불영향구역) 약 243ha(추정)

\*\* (장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 일원, (발생일시) 2026.2.23. 16:10(추정), (산불영향구역) 약 149ha(추정)

긴급진단은 산사태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 주관으로 산림, 지질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 파악한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 한 후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재관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PA**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현장 진단 사진 1〉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 피해지역 진단 현장 모습



〈현장 진단 사진 2〉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 피해지역 진단 현장 모습

# 산림청, 대도시 주요 산 101개소 산불진화 전략 현행화

대도시 산불 대응체계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 기반 마련



“ 대도시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불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국가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도시 인근 주요 산림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도시 주요 산 산불진화 전략’을 2026년 2월말 기준으로 보완·현행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국 대도시의 주요 산 101개소를 대상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장소, 진화자원 현황, 주요 진입로 및 접근 동선, 담수지 정보, 주민대피시설 현황 등 산불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대도시 주요 산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초기 대응과 현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전략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산불 대응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도시 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대도시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불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국가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DPA**

산림청 산불방지와

# 대도시 주요 산 산불진화 전략

2026. 2월 기준

## 대도시 주요 산 산불진화 전략

대상 : 전국 대도시 인접 주요 산 101개소

서울·경기 39 | 대전·충청 13 | 대구·경북 9 | 부산·경남 9 | 광주·전남 9  
 인천 6 | 울산 6 | 강원 3 | 전북 3 | 세종 3 | 제주 1

### 01 주민대피시설 사전 지정



- 산불 발생 즉시 주민대피 최우선 실시
- 최소 2개소 이상 사전 지정

### 02 산불현장 진입로 및 임도



- 산불진화자원(차량, 인력) 진입 경로 설정
- 협소 도로, 장애물 현황 등 사전 파악

### 0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림청, 지방정부, 소방, 국방부, 경찰, 기상청 등 합동진화 지휘
- 산불현장 도착 즉시 통합지휘체계 가동

### 04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확보



- 헬기 담수 가능한 저수지 등 사전 지정
- 이동식 저수조 설치 위치 사전 지정

### 05 주요시설 우선 보호



- 병원, 학교, 문화재, 에너지 시설 등 보호대상 시설 목록화
- 산불 확산 시 주요시설 주변 자연제 살포

### 06 진화자원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관할기관 가용 진화자원 상시 현행화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시 현행화



# 전국 산불예방 합동 기동단속 돌입... 산림 분야 전 기관 **산불발생 선제적 대응**

---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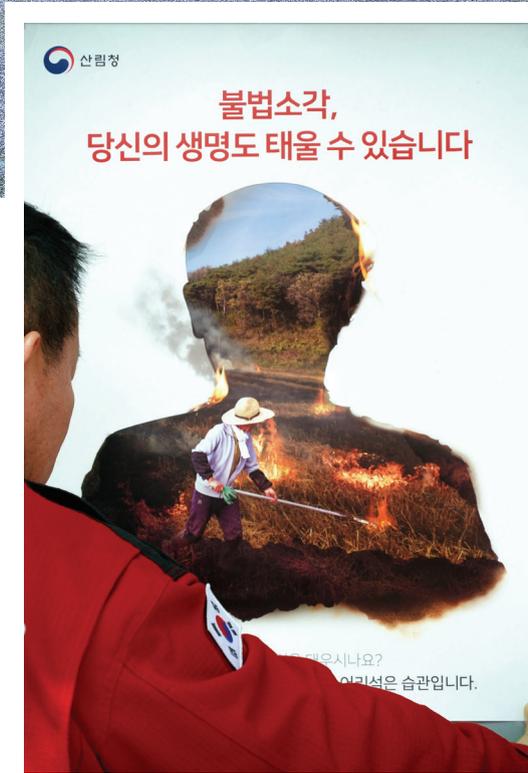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KDPA**



산불 예방 홍보 포스터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 광역 방제기 활용, 대형 산불 차단한다

충남소방, 서산시와 협력해 건조특보 시 산불 취약지 대상 예비주수 추진



---

“산불은 발생 이후  
진화하는 것보다 발생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충남소방본부와 서산시는 장기화되는 건조특보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광역 방제기를 활용한 예비주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주수 활동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티가 급격한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도 소방본부의 요청을 서산시가 적극 받아들여 추진한다.

예비주수는 작은 불티 하나가 마을과 도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산림 경계와 주거지, 주요 시설 주변에 습도를 높이고 착화 가능성을 낮춰 불길이 달기 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산불 예방의 핵심 전략이다.

실제 국립소방연구원의 비상 소화장치 실험 결과에 따르면, 3분만 물을 뿌려도 비화에 의한 착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서산시 도비산 인근에서 예비주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예비주수를 위해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 중인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광역 방제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광역 방제기는 분당 420리터를 미세 분무 형태로 방사할 수 있는 대형 살포 설비로, 최대 150미터까지 균일한 살수가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서산시와 협력해 기상 상황과 산불 위험도를 종합 고려해 예비주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호선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은 “산불은 발생 이후 진화하는 것보다 발생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DPA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대응과

[브리핑 & 뉴스]

## 정책브리핑

- 01 |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빡’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 02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 03 |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 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막는다
- 04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05 |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6 | 기상청, 「2025 지진연보」 발간

P

Together for  
Safe Korea

A

#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주민대피 재난문자, 반드시 위급·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개편  
TV 자막방송,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 < 단계별 재난문자 발송 체계 >

구분	발송 대상	알림 소리	수신 거부
위급 재난문자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휴대전화 최대 음량 (40dB 이상)	불가
긴급 재난문자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호우(기상청장 직접발송), 홍수정보(심각)(홍수통제소장 직접발송),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가능
안전 안내문자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일반문자와 동일	가능

###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TV 자막방송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안내(250자 이내)하여, 국민께서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 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 전·후 비교

### < 재난문자 개선 >

#### □ 글자 수 확대(예시)

구분	기 존 (90자)	개 선 (157자)
강풍 경보	○ 오늘 00:00 00지역 강풍경보 발효.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 입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고 사고 안전에 유의. [행정안전부]	○ 오늘 00:00 00지역에 강풍경보 발효.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공사장 등 낙하물 위험이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운전 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 하십시오.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 시범 지자체

구분	기 존 (1단계, '25.10~'26.2월)	확 대 (2단계, '26.2~10월)
지역	○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시, 통영시, 제주 제주시	○ 충북도, 경남도, 제주도

### < 재난방송 개선(예시) >

구분	기 존	개 선
산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0월 00일 00:00 00 지역에 산불(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li> <li>○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li> <li>○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에 간이 진화도구(괘이, 갈퀴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시기 바랍니다.</li> <li>○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0월 00일 00:00 00 지역에 산불(경계,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li> <li>▲ 산불을 발견하면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119), 경찰서(112) 등에 신고</li> <li>▲ 집 주변에 물을 뿌린 뒤 문을 닫고, 폭발성·인화성 물질은 없앴</li> <li>▲ 주민대피령이 내리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고 재난방송 정보를 확인</li> <li>▲ 산림 인근 거주자는 간이 진화 도구와 안전장구를 준비</li> <li>○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li> </ul>

#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면 재조사,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 누락, 관리 소홀 등  
확인 시 엄중 징계

“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26.2.24.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총괄·운영 및 소하천, 기후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식품부는 구거를 담당한다.

3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하게 실시한다. 재조사 기간 중에도 안전

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과징금 부과사례 〉

- (사례1)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시 부당이득금 3배까지 과징금(중기부)
- (사례2) 공연·스포츠 압표 적발 시 판매액 최대 50배, 이익금은 몰수·추징(문체부)
- (사례3)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까지 과징금(개보위)

정부는 2월 27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 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막는다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거한 구간에서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 주요 내용

### □ 배경

- ◆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합동 TF 운영('25.7.4~))
- ◆ 불법점용 조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조성을 위해 하천환경 개선 사업 추진

### □ 공모사업 선정 계획

- ◆ **(공 모)**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1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실시, 우수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즉시 예산배정
- ◆ **(실적연계)** '25년 불법점용 조치 실적 평가('25.11월,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가점 (10점 이내) 부여

### □ 공모사업 평가계획(안)

- ◆ **(대상기관)**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지방정부
- ◆ **(공모대상)** 상습 불법점용 구간으로, 불법점용시설 정비 조치가 완료된 국가하천 구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 사업(10억원 내외)  
\* 친수공간 조성, 수초 식재, 습지 조성 등
- ◆ **(공모기한)** ~2026. 3. 6
- ◆ **(평가/선정)**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 평가 / 10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배 점
사업의 타당성	불법점용 재발 방지, 상습 불법점용 구간 등	30
사업의 적절성	유수소통 지장 여부,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40
사업의 공공성	시설 이용자 다양성, 민원 발생 가능성 등	30
불법점용 조치 가점	불법점용시설 정비 행안부 평가 우수기관	+10

### □ 향후계획

- ◆ 불법점용 조치완료구간 지방정부 환경개선사업 공모(~'26. 3. 6(금). 지방정부→기후부)
- ◆ 공모사업 평가 및 예산 배정(~'26. 3월말, 기후부)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최대 배율 확대, 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해양공간정보포털 '개방해(海) (www.khoa.go.kr/oceanmap)'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사용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2월 24일(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방해(海)'와 '안전해(海)'에서 활용되는 바다지도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지도이다.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등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이 바다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하여 수심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해 이용자가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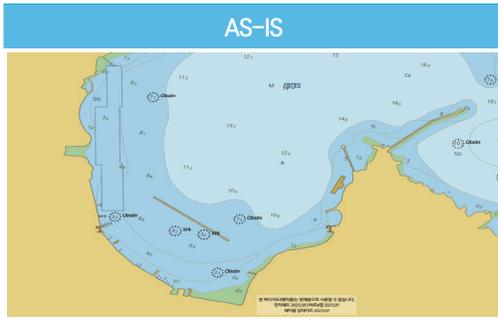
\* (현재) 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변경) 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특히,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되어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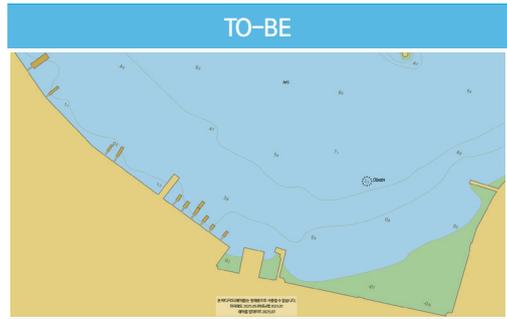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바다지도 개편은 이용자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바다지도 주요 개선사항 비교



최대 확대 레벨 : 10단계



최대 확대 레벨 : 12단계



< 기본맵(국·영문) >

< 전자해도 >



< 기본맵(국문) >

< 전자해도 >



< 영상지도 >

< 해양경계 >



< 영상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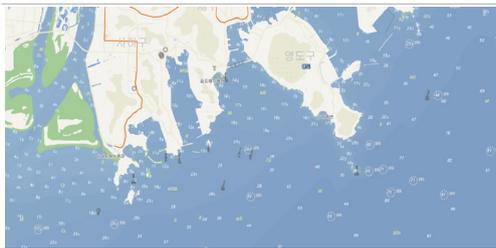


< 종이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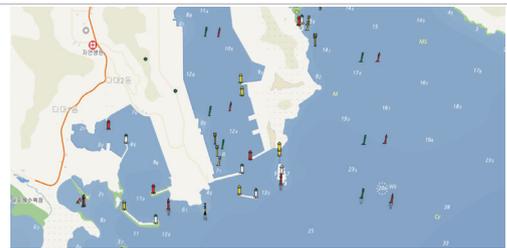
< 레저 >

지도 종류 : 7종

지도 종류 : 3종



항로표지 : 지도 내 삽입



항로표지 : 별도 객체 표시

#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상법] 한국형 독자 수치모델 고도화를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및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 구축 근거 마련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근미래전망 정보 생산을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기상청은 대기·해양·해빙·지면모델이 결합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상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법’ 개정으로 민법 기반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이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되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국가 기상·기후 재난 대응 체계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형 수치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향후 10년 후 미래 기후까지 예측하기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

## □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률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1	기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li> <li>○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li> <li>○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치모델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기상 예측력 향상으로 국가 SI 경쟁력 및 재난대응력 강화</li> <li>○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li> <li>○ 국민·관계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편의 증대</li> </ul>	공포 후 6개월
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미래전망(향후 10년까지의 기후전망) 생산 근거 마련</li> <li>○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더욱 내실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지원</li> <li>○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 생산</li> </ul>	공포 후 1년

고,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션 기상청장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한국형 수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기상청은 대기·해양·해빙·지면모델이 결합된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DPA**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기후정책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수치예보기획과

## 기상청, 「2025 지진연보」 발간

작년 국내 지진 총 79회로 연평균을 웃돌았으나 최근 3년 중 최저수준  
연천지진(규모 3.3), 1978년 관측 이래 수도권 내륙 최대 규모 기록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많은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여 진앙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하여  
나가겠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2025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통계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5 지진연보」를 2월 25일(수) 발간하였다. 본 연보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진도 분포도, 발생 특성 등 상세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국내 지진은 총 79회로 연평균\*(72.8회)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나, 2023년(106회)과 2024년(87회)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는 북한지역과 동해해역 지진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 또한 총 4\*\*회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지진 발생 횟수의 평균

\*\* 태안 해역지진(규모 3.7), 연천지진(규모 3.3), 충주지진·육천지진(규모 3.1)

국내 지진 중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43회(54.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36회(45.6%)로, 내륙 지진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내륙 지진은 남한 22회, 북한 21회로 남북한의 발생 빈도가 유사하였다. 남한내륙에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10회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과 충북지역에서 각각 3회, 서울·인천·경기지역과 전북에서 각각 2회,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1회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제주와 강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전 수준(연 2~11회)으로, 2016년 이후 급증하였던 경북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9년 이후 여진이 줄어들면서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대 규모의 지진은 5월 5일 오전 7시 53분경 충남 태안 해역에서 발생하였던 규모(ML\*) 3.7 지진이었다. 내륙에서 약 52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인천(진도 IV(4))과 서울·경기·충남(진도 II(2))까지 전달되었다. 지진은 북동-남서 또는 북서-남동 방향의 정단층성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발생하였고, 단층운동에 따른 규모(Mw\*\*)는 3.6이었다. 여진은 5월 11일까지 7일간 2회(최대 규모 1.4) 발생하였다. 이 해역 인근에서는 지난 1982년에 규모 4.0 지진이 관측된 바 있다.

\* ML(국지지진규모):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진의 크기(리히터 규모)

\*\* Mw(모멘트규모): 단층이 움직인 면적과 거리를 계산하여 지진이 방출한 전체 에너지로 추정된 지진의 크기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5월 10일 연천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이는 1978년 계기관측 시작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또한, 최근 부안(2024년), 장수(2023년) 등 과거 지진이 빈번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많은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상청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여 진앙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진도 VI(6) 이상의 강한 지진이 예상되면, 피해 가능성이 큰 진앙 인근에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2025 지진연보」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되었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kma)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 지진연보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연구과

## 2025년 국내 지진 발생 현황

### □ 규모 2.0 이상\* 지진의 규모 구간별 지진 발생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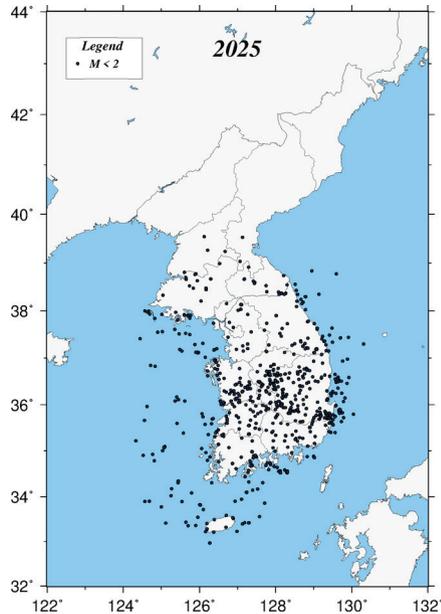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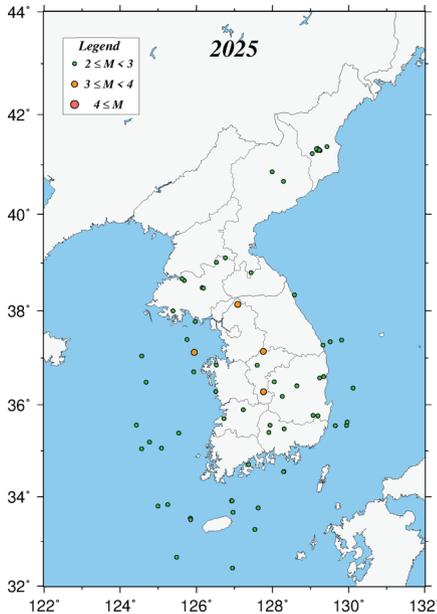
규모	2.0~2.9	3.0~3.9	4.0~4.9	5.0 이상	계
횟수	75	4	0	0	79

\* 규모 2.0 이상 지진은 국가승인 통계로 분류되며 기상청의 지진 통보 기준임

### □ 규모 2.0 미만을 포함한 지역별 지진 발생 횟수

구분	지역	내륙										해양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세종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북한	동해	남해	서해	
규모 2.0 이상	2025년	2	10	1	1	3	0	3	2	0	21	8	14	14	79
	연평균 ('99~'24년)	1.1	18.5	2.6	1.6	2.3	1.4	1.4	1.6	0.2	11.8	9.9	7.3	13.2	72.8
규모 2.0 미만		41	229	51	37	46	71	46	80	6	42	98	60	82	889

※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2회임



< 2025년 지진 발생 분포도(왼쪽: 규모 2.0 이상, 오른쪽: 규모 2.0 미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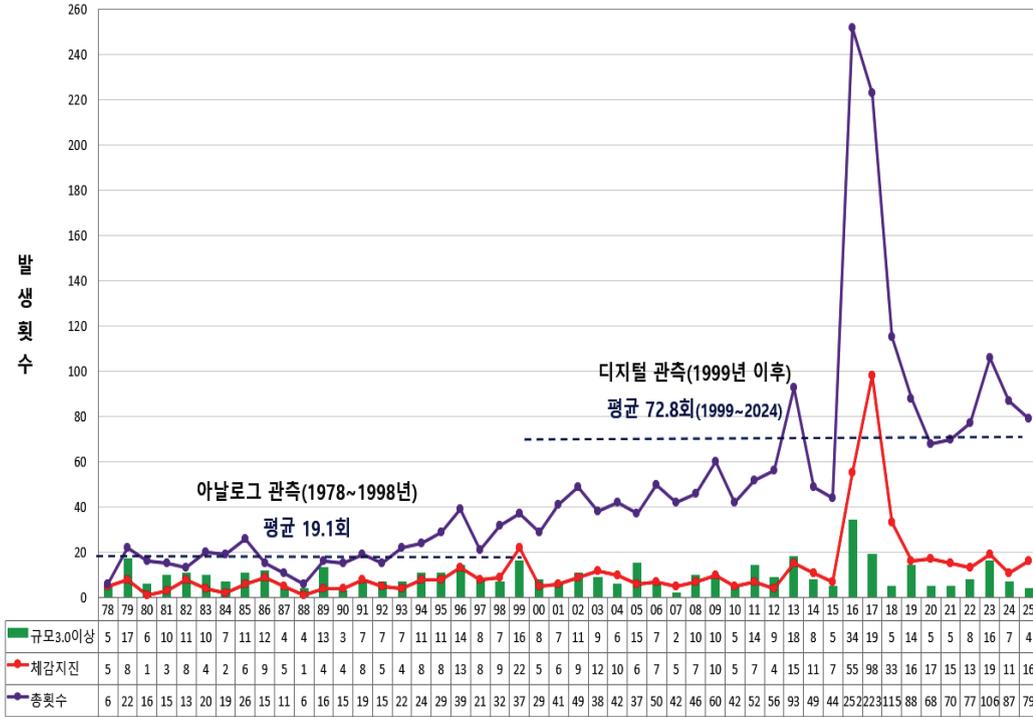


## 국내 지진 발생 통계

### □ 기상청 계기 관측 기간(1978~2025년) 현황 (규모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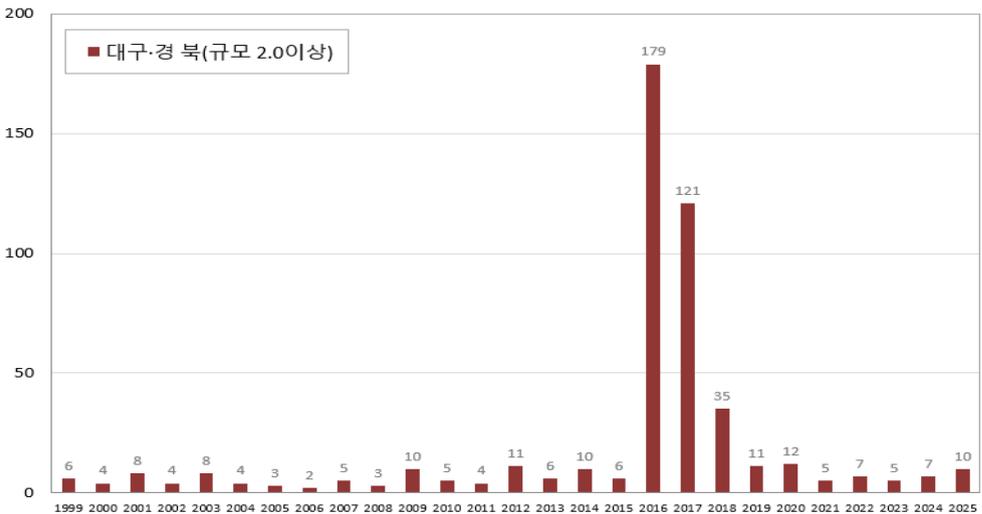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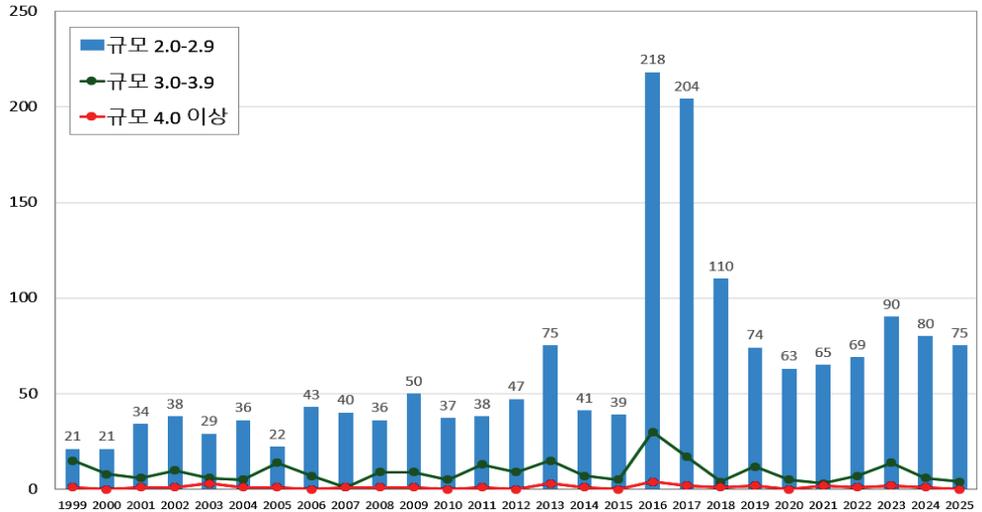
구 분	관측 기간별 연평균 횟수			2025년 발생 횟수
	계기 관측 (78~24년)	아날로그 관측 (78~98년)	디지털 관측* (99~24년)	
총횟수	48.8	19.1	72.8	79
규모 3.0 이상	9.7	8.8	10.5	4
체감지진	11.7	5.9	16.3	16

\* 디지털 관측 : 현재와 같은 디지털 지진계를 통해 지진파 신호를 기록



〈 연도별 지진 발생 추이(1978~20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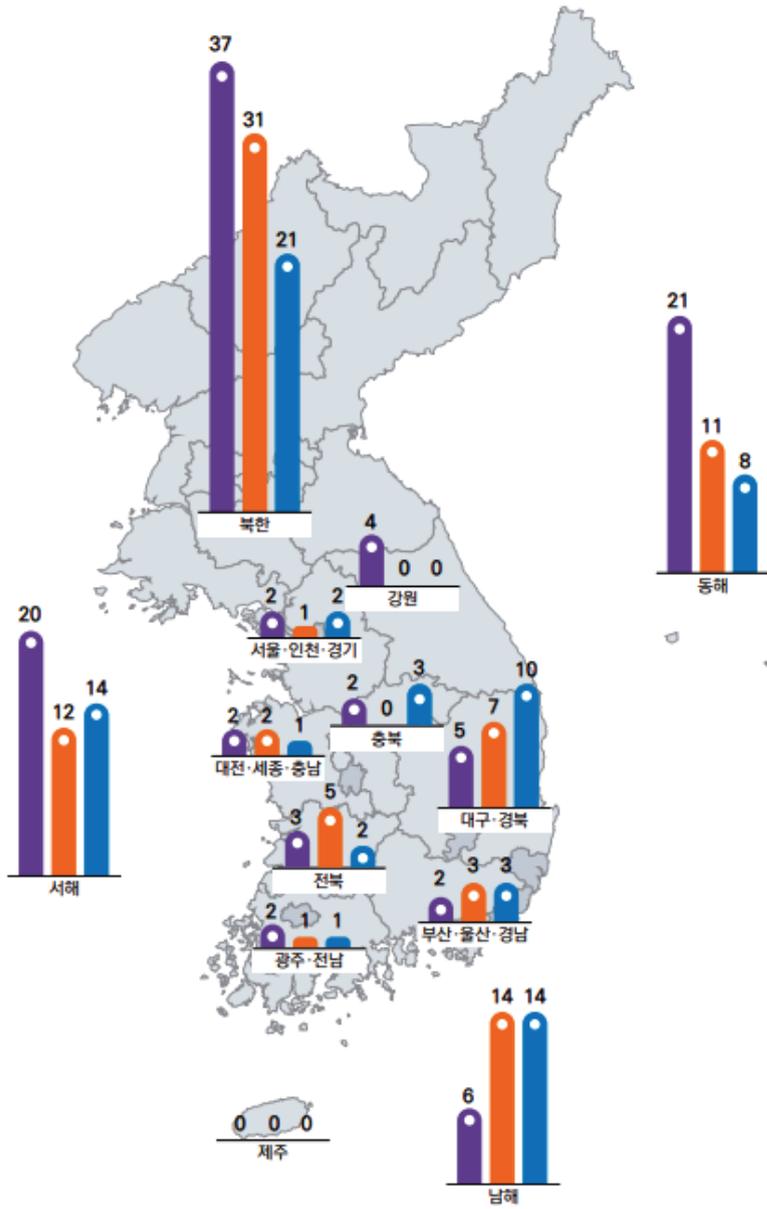
□ 기상청 디지털 관측 기간(1999~2025년) 현황 (규모 2.0 이상)



〈 연도별 국내지진 발생 추이(상), 연도별 대구·경북 지진 발생추이(하) 〉

- 국내 지진발생 경향은 2016~2017년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2025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짐

- 2016년 이후 급증하였던 경북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9년 이후 여진이 줄어들면서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지역별 지진 발생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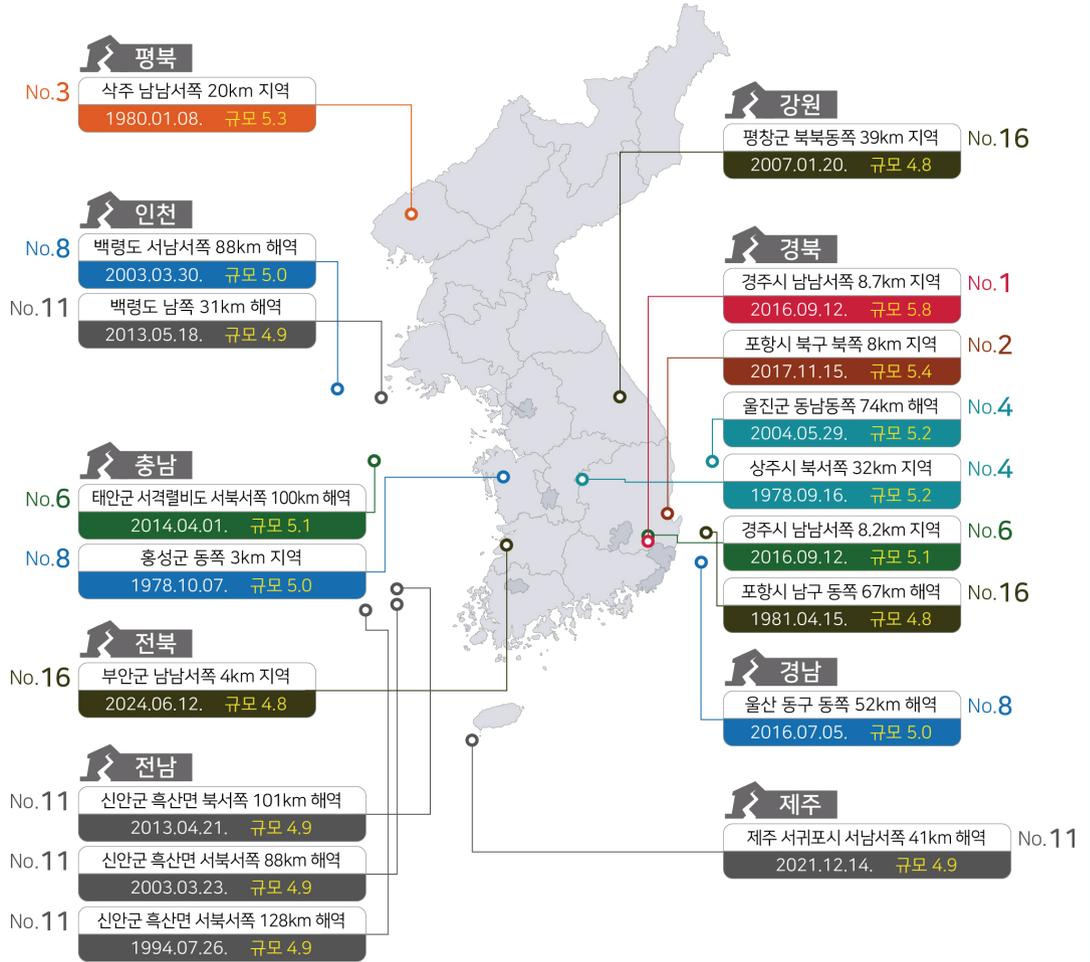
〈 지진 규모 구간에 따른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규모 2.0 이상) 〉

연도	규모	2.0~2.9	3.0~3.9	4.0이상	합계
1999		21	15	1	37
2000		21	8	0	29
2001		34	6	1	41
2002		38	10	1	49
2003		29	6	3	38
2004		36	5	1	42
2005		22	14	1	37
2006		43	7	0	50
2007		40	1	1	42
2008		36	9	1	46
2009		50	9	1	60
2010		37	5	0	42
2011		38	13	1	52
2012		47	9	0	56
2013		75	15	3	93
2014		41	7	1	49
2015		39	5	0	44
2016		218	30	4	252
2017		204	17	2	223
2018		110	4	1	115
2019		74	12	2	88
2020		63	5	0	68
2021		65	3	2	70
2022		69	7	1	77
2023		90	14	2	106
2024		80	6	1	87
연평균('99~'24)		62.3	9.3	1.2	72.8
2025		75	4	0	79

〈 지역 구분에 따른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규모 2.0 이상) 〉

연도	구분	내륙										해역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북한	동해	남해	서해	
1999		0	6	3	0	0	6	2	1	0	2	10	1	6	37
2000		1	4	4	1	2	1	0	1	0	6	1	1	7	29
2001		1	8	4	3	2	2	1	4	0	1	3	2	10	41
2002		1	4	5	5	5	2	2	1	0	4	5	2	13	49
2003		0	8	5	1	1	0	1	0	0	0	5	3	14	38
2004		2	4	2	0	3	2	0	1	1	4	5	10	8	42
2005		0	3	0	2	0	1	2	0	0	3	7	9	10	37
2006		0	2	4	0	4	3	2	2	0	5	13	6	9	50
2007		0	5	2	1	2	6	3	0	0	7	13	0	3	42
2008		4	3	2	0	2	0	0	1	0	11	6	5	12	46
2009		1	10	2	1	2	0	0	3	0	13	5	9	14	60
2010		1	5	5	2	0	0	0	1	0	10	7	7	4	42
2011		0	4	2	0	0	2	1	0	0	10	10	10	13	52
2012		0	11	1	1	2	1	1	4	0	7	9	7	12	56
2013		1	6	1	1	2	0	3	0	0	7	15	5	52	93
2014		2	10	0	2	0	0	0	1	1	7	7	7	12	49
2015		1	6	2	1	1	1	1	1	0	3	8	12	7	44
2016		1	179	6	1	6	1	0	1	1	23	15	12	6	252
2017		0	121	3	5	5	1	2	2	0	25	20	18	21	223
2018		1	35	4	2	1	2	4	2	0	13	18	13	20	115
2019		4	11	0	0	5	0	2	0	2	21	16	11	16	88
2020		2	12	2	6	1	1	1	2	0	20	7	3	11	68
2021		1	5	0	2	7	0	1	5	0	16	10	4	19	70
2022		1	7	4	2	2	0	5	0	0	20	11	12	13	77
2023		2	5	2	2	2	4	2	3	0	37	21	6	20	106
2024		1	7	2	1	3	0	0	5	0	31	11	14	12	87
연평균('99~'24)		1.1	18.5	2.6	1.6	2.3	1.4	1.4	1.6	0.2	11.8	9.9	7.3	13.2	72.8
2025		2	10	1	1	3	0	3	2	0	21	8	14	14	79

〈 기상청 계기 관측(1978년) 이후 지진 규모 순위(16위까지) 〉



[브리핑 & 뉴스]

## 지자체뉴스

- 01 | 제5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새출발!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 '동행' 시작
- 02 | 전북자치도, 300억 투입 '사방사업 속도전'... 우기 전 80% 완료 목표
- 03 | 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추진
- 04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보장
- 05 | 서울시, 포트홀 27% 감소... 고강성·고내구성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 입증
- 06 | 부산광역시장, "암남동 태풍 피해 반복 더는 없어야"... '암남동 방재호안' 2단계 착공
- 07 | 부산 재난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부산 안전 ON' 누리집 시범운영
- 08 | 경상남도, 극한 재난 대응...경남형 재난 안전마을 조성한다!

Together for  
Safe Korea

# 제5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새출발!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 '동행' 시작

임원 위촉·정기총회 개최, 도심 가두 캠페인으로 자율방재단 활동 알려

“자율방재단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이며, 현장의 예찰·점검과 안전홍보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충청북도도 자율방재단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

충청북도는 2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연합회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이끌 새 임원진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재난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5기 임원 5명을 위촉했으며(임기: 2026. 3. 1. ~ 2029. 2. 28.), 그동안 연합회 운영과 지역 안전활동에 기여한 전임 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촉식에 이어 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과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행사 직후에는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도심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서는 재난 취약시기 대비 행동요령과 일상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예방·예찰·홍보 활동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청북도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재난취약지역 예찰 및 위험요인 점검 △안전수칙 홍보 △위험 발견 시 신속 제보 △초기 대응 지원 등 '생활권 안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연합회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이끌 새 임원진 모습

### 〈 충청북도 지역자율방재단 〉

- ▶ **(구성·인원)** 153개 읍면동, 4,599명('06년부터 운영, '25.12.31.기준)
- ▶ **(목 적)**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 봉사 단체로 마을 단위 재난안전 대응 체계 강화
- ▶ **(주요 활동)** ①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예찰활동 및 재난 위험요인 제거  
② (비상시) 재난현장 출입통제, 사전대피 유도, 피해지역 인력 지원 등

도는 제5기 출범을 계기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은 “자율방재단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예찰·점검과 안전홍보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북도도 자율방재단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재난 예방 중심의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합회·시·군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KDPA**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 전북자치도, 300억 투입 ‘사방사업 속도전’… 우기 전 80% 완료 목표

산림기술인 60여 명 참여 기술간담회… 2026년 사방사업 추진방향 공유  
총사업비 300억 100만 원 투입, 산림유역관리·사방댐 등 13개 유형 집중 추진  
상반기 전면 착공, 우기 전 80% 완료 통해 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기후위기 시대에 사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 인프라이며,  
현장 기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기 전 신속하고 견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26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를 개최하고 우기 전 주요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속도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군산·익산·남원 등에서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된 극한호우 사례를 공유하고, 재해예방 중심의 견실한 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산림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시·군 산림조합, 산림토목법인, 산림기술용역업체 등 현장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300억 100만 원을 투입해 △산림유역관리 15개소 △사방댐 31개소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6ha △사방댐 유지관리 49개소 등 총 13개 유형의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업 비중을 전년도 50%에서 올해 80%까지 대폭 확대해 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재해예방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적·유역완결형 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전년 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크게 늘린다.



#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

일시 2026. 2. 26.(목) 14:0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 모습

도는 올해 사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모든 사방사업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전체 사업 물량의 80%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공정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인프라”라며 “현장 기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기 전 신속하고 견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지휴양과



〈사방댐 사진 1〉 사방사업으로 구축된 사방댐 전경



〈사방댐 사진 2〉 사방사업으로 구축된 사방댐 전경

## 전북자치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추진

신규 재해예방사업 사전 컨설팅·자체심사 실시  
민간 전문가 참여로 사업 타당성 및 완성도 강화  
2027년 국가예산 확대 확보를 위한 행안부 평가 선제 대응

“기후변화로 재난이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되고 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겠다.”

전북자치도가 2027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13개 시군이 신청한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건에 대해 컨설팅과 자체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자체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평가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사에는 민간전문가 6명이 참여해 시군의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재해위험 분석의 적정성, 피해 저감 효과의 객관성, 사업 규모 및 공법의 합리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필요 시 구조적 보완 방향과 우선순위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중심의 자문에 초점을 맞췄다.



재해예방 신규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전문가 컨설팅 모습

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균특)로 지원받는 구조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사업별 타당성과 보완할 사항을 컨설팅 및 자체심사를 거치고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복합·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DPA**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보장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 보장, 지급 잦은 화재·폭발·붕괴 보장액 확대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 시·구 보험 중복 허용, 상담·접수 시스템 개선해 접근성 높여  
서울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

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월 정식 운영 예정이며, 보장항목·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청구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다중운집인파사고·대형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침하 포함)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

## 2026년 시민안전보험 운영내용

### □ '26년 세부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건축물, 산사태, 지반 침하) 상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건축물, 산사태, 지반 침하) 상해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반침하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서울특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울특별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14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서울시, 포트홀 27% 감소... 고강성·고내구성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 입증

작년 1~11월 포트홀 18,948건, 최근 5년 동기 평균 25,816건 대비 26.6% 감소  
강수량 증가에도 포트홀 감소, 9월 말 기준 도로 파손 민원 3년 동기 대비 8% 감소  
내구성 높은 포장 기술 확대, 기후대응형·기능성 포장으로 친환경성·주행안전성 높여  
도로 수명 늘리고 유지관리 주기 8→10년 연장, 올해 주요 간선도로 중심 확대 도입  
시,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 도로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의 성과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안전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적용 구간을 지속 확대하겠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 도로의 전반적인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 건수가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약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 서울 시내 포트홀 발생 건수는 18,948건으로, 최근 5년 동기간 평균인 25,816건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은 1,541mm로 최근 5년 평균 1,481mm을 웃돌았음에도 포트홀 발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집중호우와 동결·융해(도로가 얼고 녹는 현상)가 반복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입한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은 폭염·폭우 등 다양한 기후 변화로 인해 파손이 잦아진 도심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고강성·고내구성 포장 기술 표준화 방식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이다. 시는 2010년 중앙버스 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도입 후, 다양한 신소재와 공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확대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4년 12월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을 완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주요 도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시민 불편도 줄었다. 지난해 1~9월 기준 도로 파손 등과 관련된 민원은 15,771건으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17,044건 대비 약 8% 감소했다. 도로 안전과 시민들의 차량 주행 불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정책 효과가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시는 포트홀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중앙버스정류장에 제강슬래그와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등 내구성이 강화된 포장 기술을 적용해 도로 파손을 줄여왔다. 제강슬래그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환자원으로, 일반 골재보다 25% 이상 높은 강도를 갖는다.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은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403곳 중 136곳에 설치돼 있으며, 시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 차로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형·기능성 포장 기술도 확대되고 있다. 고온과 수분에 대한 저항 성능이 개선된 포장재와 내구성·수밀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 도로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 주기를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고온 저항 성능 개선 포장은 변형이 발생하는 임계 온도를 높이는 첨가제를 활용해 공용수명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수분 저항 성능 강화 포장은 아스팔트 바인더와 박리방지제를 사전 혼합해 아스콘 품질의 균질성을 높인다.

아울러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한 ‘중온 포장’과 물 빠짐이 원활해 빗길 운전자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배수성 포장’ 등을 적용해, 환경성과 주행 안전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 중온 포장은 아스콘 생산·시공 온도를 약 30℃ 낮춰 연

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공법으로, 환경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도로 파손 감소는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주기 연장과 파손 저감에 따른 예방 효과로 전체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포트홀 긴급 복구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사전 계획에 기반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 구간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공법·신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극한 기후에도 안정적인 도로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의 성과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안전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적용 구간을 지속 확대하겠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 도로의 전반적인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DPA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서울시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 포장 사진

### □ 제강슬래그 포장



2024년 7월 중구 세종대로



2025년 6월 서대문구 신촌로

### □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2025년 10월 강남구 신사역



2025년 11월 강남구 강남역

## 부산광역시, “암남동 태풍 피해 반복 더는 없어야”... ‘암남동 방재호안’ 2단계 착공

2.26. 11:00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에서 기공식 개최... 시장, 시의원, 서구청장, 구의원,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 참석

매년 태풍 도래 시 월파로 피해를 받고 있던 암남동 등대로 일원에 기존 방재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 태풍 월파 피해 막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

시장, “방재호안 정비를 통해 태풍 피해를 막는 한편 매립부지에 공원, 체육시설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할 예정

---

“ 서구 암남동 등대로는 해안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노후 호안으로 인해 태풍 때마다 피해를 겪어온 이 지역에 방재호안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매립으로 확보되는 공간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 26일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 남향체육공원(죽구장)에서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공한수 서구청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공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부산시장), 내빈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은 기존 낮은 호안 높이로 인해 태풍 내습 시마다 발생하는 월파 피해를 예방하고, 내륙 침수 및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 공사는 서구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거북섬까지 약 1천 미터(m) 구간에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351억 원이며, 1단계 사업은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 500미터(m) 구간 462억 원이 확보되어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 사업을 준공



안남동 방재호안 사업 위치도



안남동 방재호안

했다. 금번 2단계 사업은 송도해수피아에서 송도해수욕장 거북섬까지 약 500미터(m) 구간에 889억 원 예산으로 3년간 연차별 투입되며,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은 기설치된 1단계 호안과 유사한 형태와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금회 사업으로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시설물 파손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매립지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친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은 해안변 호안(테트라포드)과 인근 신축건물 사이에 해안도로(등대로) 외 별다른 완충시설이 없어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침수 피해에 항시 시달려 왔다. 특히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월파로 인해 해안도로와 횡집, 아파트, 숙박시설 등이 침수되어 큰 재산피해와 손실을 입었다.

이번 공사로 전체 호안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매립 확장된 호안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2022년 준공된 방재호안 1단계 구간은 서구청에서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멀티운동장 등 공간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서구 암남동 등대로는 남측으로 우리나라 공설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과 송도해상케이블카, 천마산터널, 남항대교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라며, “노후 호안으로 인해 태풍 때마다 피해를 겪어온 이 지역에 방재호안 준비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매립으로 확보되는 공간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1팀

##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추진배경) 태풍 내습 시 발생하는 재해예방 및 항만시설 관리 강화
- ▶ (사업기간) 2023~2028
- ▶ (위 치) 부산남항 암남동 일원(송도해수피아~거북섬)
- ▶ (사업규모) 방재호안 2단계 L=500m, B=43m
- ▶ (총사업비) 889억원 ▷ 시 889

### □ 추진경과

- ▶ '20. 12. : 제4차 전국 항만(연안항) 기본계획 고시 (해수부)
- ▶ '21. 1.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 관리청 변경 (해수부→부산시)
- ▶ '23. 3. : 행안부 타당성조사 이행(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9.~'23. 3)
- ▶ '23. 6. :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완료
- ▶ '23. 8. : 市 공유재산심의 완료
- ▶ '23. 9.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제316회 임시회)
- ▶ '23. 11. : 사업 시행 요청(시 해운항만과⇒건설본부 토목시설부)
- ▶ '24.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 '25. 4. : 건설기술심의(설계, 공사기간적정성) 수행, 공사발주계획보고
- ▶ '25. 5. : 경관위원회 심의 수행,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계약의뢰(조달청)
- ▶ '25. 12. :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
- ▶ '26. 2. : 해상시추조사 및 오탁방지망 설치 준비중, 기공식

### □ 향후계획

- ▶ '28. 12. : 공사 준공

# 부산 재난정보 한눈에 확인해요,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부산 안전 ON’ 누리집 시범운영

도시침수, 원자력안전 등 재난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산 안전 ON’ 누리집 개설해 4.30.까지 시범운영 예정

△도시침수 △지진/내진 △원자력안전 △땅꺼짐/산사태 △폭염/한파 △대피소 등 6개 분야로 구성, 분야별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

시, 이번 누리집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찾고,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서구 암남동 등대로는  
해안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노후 호안으로 인해 태풍 때마다  
피해를 겪어온 이 지역에  
방재호안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매립으로 확보되는 공간은 주민들이  
즐거 찾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 누리집(<https://safecity.busan.go.kr>) ‘부산 안전 ON\*’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그동안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제공되던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 안전 ON’은 그동안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시·안전 종합 서비스로 △도시침수 △지진/내진 △원자력안전 △땅꺼짐/산사태 △폭염/한파 △대피소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시침수 분야]** 하천 수위, 풍향·풍속, 조위, 기상청 강우 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시민들이 주변 위험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내진 분야]** 지진 발생 정보와 함께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원자력안전 분야]** 실시간 환경방사선 현황을 제공하고, 방사선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재민 구호시설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땅꺼짐·산사태 분야]** 산사태 취약지역 정보와 땅꺼짐 발생 현황,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정보 등을 제공해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난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위치와 함께 상황별 행동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대피소]** 민방위 대피소,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해일 대피장소, 한파·무더위 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각종 대피 및 안전시설 정보를 통합 제공해, 평상시에는 생활 안전 정보로, 재난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대피·대응 안내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5월부터 '부산 안전 ON' 누리집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 안전 ON'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평소에도 안전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시 안전 정보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구축된 '부산 안전 ON'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민 중심의 누리집”이라며,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재난현장대응팀

# 누리집 표출 사진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
안전
ON

도시침수
지진/내진
원자력 안전
명파질/산사태
폭염/한파
대피소

	침수정보	지진발생 정보	실시간 환경방사선 현황	산사태 취약지역	한파실태	민방위 대피시설
	하천수위	지진 옥외대피장소	해수방사능 감시 및 분석	산사태 실태정보	무더위 실태	지진 옥외대피장소
	풍황풍속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수산물·식품 안전성 검사	명파점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한파 행동요령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조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진경용)	방사선 비상시 이재민 구조소 현황	GPR탐사	무더위 행동요령	한파실태
	기상청경우	지진 국민행동요령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무더위 실태
	데이터조회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진단	열원 원전운영정보(고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진경용) 방사선 비상시 이재민 구조시설

연제구
연산5동

시민이 자주 찾는 메뉴

기상청 경우

하천수위

한파 실태

한파 행동요령

무더위 실태

오늘 내일

현재

**5.2°**

흐림  
강수확률 30%

최저

**-1.0°**

강수확률 20%

최고

**6.0°**

강수확률 20%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2026-01-26 16:50:00 업데이트

부산광역시

부산
안전
ON

도시침수
지진/내진
원자력 안전
명파질/산사태
폭염/한파
대피소

**침수센서수위**

핵심수위

도보침수

빗물받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역 선택

**과거 침수이력**

2020년 침수

**도로통제**

사고

공사

장애

침수심 범위

침수심	범위
0.3~0.5m 미만	노란
0.5~1.0m 미만	주황
1.0~1.5m 미만	빨간
1.5~2.0m 미만	초록
2.0~3.0m 미만	초록
3.0m 이상	초록

**빗물받이 (12 개소)**

빗물받이이력

구분	지명	빗물받이 수위 (cm)
남구	중앙안길 2가	0.00 / 50.00 (0.00%)
남구	유래천 안천길 2교	0.00 / 40.00 (0.00%)
동구	제천동 1119-2 31	0.00 / 80.00 (0.00%)
동구	제천동 1119-2 32	<b>89.50 / 80.00 (43.89%)</b>
동구	초왕 재지(차지)역	0.00 / 67.00 (0.00%)
동구	초왕 재지(차지)역	0.00 / 74.00 (0.00%)
동구	초왕 재지(차지)역	0.00 / 88.00 (0.00%)
동구	초왕 재지(차지)역	0.00 / 87.00 (0.00%)
서구	금명동 배후길 2번 단	<b>30.00 / 20.00 (15.47%)</b>
동구	봉명동 97-8-2 32	<b>11.20 / 85.00 (13.18%)</b>

63

# 경상남도, 극한 재난 대응... 경남형 재난 안전마을 조성한다!

도내 마을별 대피체계·훈련 평가...대피 우수마을 3개 선정  
대피 우수마을에 1억 5천만 원 방재시설 정비 지원...재난 예방력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마을 단위 대피 및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재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적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이 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는 대피·방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마을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즉시 작동하는 체계를 갖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대피훈련 지원사업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마을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방재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 단위 방재 능력을 강화한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1개 마을씩 추천받아 대피체계와 훈련 내용을 평가한 뒤 최종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한다. 평가 순위에 따라 마을당 최대 6천만 원 규모의 배수로 정비,

토석류·낙석 방지시설 설치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 최우수 마을 6천만 원, 우수 마을 5천만 원, 장려 마을 4천만 원 지원

사업 일정은 3월 20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4월 중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대피 우수마을을 확정한다. 선정된 마을(시군)에는 방재시설 정비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방재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라며, "마을 단위 대피·방재 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재난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도민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 예방사업 예시

사면  
정비



배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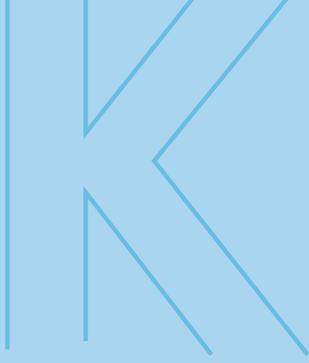


사면·  
배수  
정비



낙석  
정비





**[브리핑 & 뉴스]**  
**회원사뉴스**

- 01 | LH, 'AI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 확대... 응벽·사면 안전강화
- 02 | 다보스포럼에서 '협력 신호탄' 한국수자원공사, OpenAI와 AI 물관리 모색



Together for  
Safe Korea



# LH, ‘AI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 확대… 옹벽·사면 안전강화

AI 스마트계측시스템으로 이상징후 조기 포착..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3월부터 주요 공중 의무확인제 시행.. 발주자 의무 입회 점검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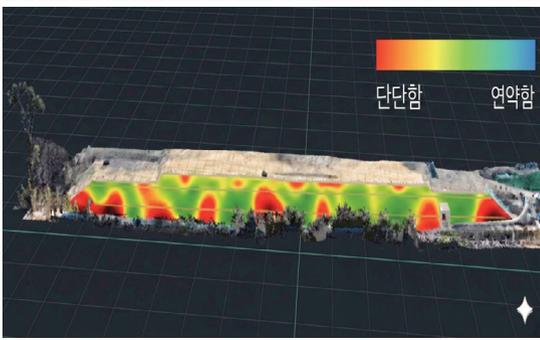
“ 기존 인력중심 관리방식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LH 관리 시설물에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신속히 확대 적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옹벽·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해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IoT 고정밀 센서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등을 융합해 옹벽의 변위, 기울기 등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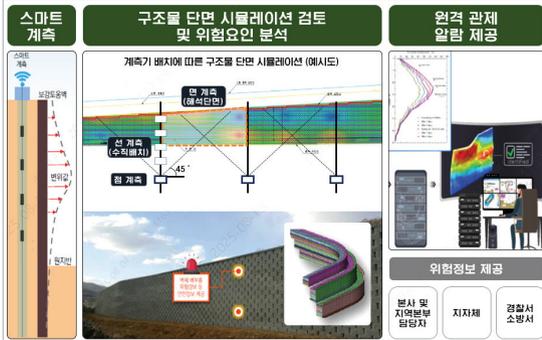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발견된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H는 현재까지 미이관 옹벽 시설물 40개소에 AI 스마트 계측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여름철 우기 시작 전까지 39개소에 추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LH는 주요 공종별 시공 품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3월부터 LH 관할 건설 현장에 ‘주요 공중 의무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는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발주자 및 전문가 등 공사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입회하여 점검하는 제도다.

### < 'AI 스마트 계측시스템' 관련 이미지 >



AI 스마트계측기 3D 분석  
(AI가 지반 상태를 분석하여 나타낸 모습)



AI 기반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도

### <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진 >



2.27(금) 화성동탄 국지도 84호선 현장에서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현장에 AI 스마트 계측기가 설치된 사진  
(현황판 우측 태양광 시설 아래 설치됨)

특히 보강도옹벽 뒷채움 보강재 공정 등을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하고, 해당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보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LH는 이상조 스마트 건설안전본부장 주관으로 화성동탄 국지도 84호선 현장에서 옹벽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기존 인력중심 관리 방식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LH 관리 시설물에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신속히 확대 적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LH 단지품질안전처

# 다보스포럼에서 ‘협력 신호탄’ 한국수자원공사, OpenAI와 AI 물관리 모색

OpenAI,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공사와 협력 가능성 공식 명시  
공사의 AI 물관리 시스템, 재난 대응 분야 글로벌 선도모델로 평가  
물관리 및 공공부문 AI 전환 선도를 통해 AI 3대 강국 실현 뒷받침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물관리 AI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올해 AI 전환의 글로벌 선도 전략  
실행 원년을 맞아 OpenAI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 물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방위적 물관리 혁신을 통해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공지능(AI)을 실제 공공 인프라와 현장에 적용하는 세계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AI 물관리 분야의 주요 글로벌 협력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AI 기업 OpenAI는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 보고서 ‘역량 격차 해소(Ending the Capability Overhang)’ 발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penAI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운영한 별도 세션에서 글로벌 정책 결정자, 공공기관, 기업들과 논의한 핵심 의제로도 활용됐다.

보고서에서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등에 AI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OpenAI는 각국 정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AI 기술 혁신과 공공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을 담았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오른쪽 여섯 번째)이 크리스 리헤인(Chris Lehane) Open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사진 오른쪽 일곱 번째)와 AI 물관리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OpenAI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식 보고서 '역량 격차 해소' 발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OpenAI는 대한민국의 실시간 물 재난 경보·대응체계를 재난 대응 분야 대표 AI 활용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대한민국의 국가 물관리 기관이자, 홍수·가뭄 대응 및 물 인프라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소개하며 OpenAI의 첨단 AI 기술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방대한 물관리 데이터·운영 경험의 결합을 통한 AI 물관리 협력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OpenAI와 AI 물관리 혁신을 위한 협력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를 물관리 AI 전환의 글로벌 선도를 위한 실행 원년으로 선언하고 AI 물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 정수장, 홍수·가뭄 예측, 디지털트윈 물관리 등 그간 축적해 온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관리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한국형 AI 물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OpenAI의 보고서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역량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AI 활용 사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 등을 통해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산을 가속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물관리 AI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올해 AI 전환의 글로벌 선도 전략 실행 원년을 맞아 OpenAI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 물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방위적 물관리 혁신을 통해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 있는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DPA**

한국수자원공사 신사업전략부

# “재난 대응 핵심, 복구가 아닌 예방”

김병렬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예방 중심 방재 철학으로 기후위기 해법 제시  
기술 기반 전략 전환으로 수자원 사업 고속 성장  
창립 35주년 동성엔지니어링, TOP 10 도약 본격화

대담 김진호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 글쓴이 박소윤 미디어펜 기자 | 사진 김상문 미디어펜 사진부장



김병렬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방재 철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재입니다. ”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다.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하천 범람은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재난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정책, 기술이 맞물린 복합적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된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김병렬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수자원 방재 분야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된다. 재난 대응의 무게중심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현장에서 체득된 결론에 가깝다. 그가 이끄는 동성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역시 최근 재해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며 성장 궤적을 이어가고 있다.

### 방재의 핵심은 '예방'... 비구조적 대책 개발해야

김 부사장이 강조하는 방재의 핵심은 단연 '예방'이다. 방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구분되지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바로 예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해 예방사업은 복구사업 대비 3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며 “사전 정비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구조물 중심의 대응을 넘어 '비구조적 대책'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제방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물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비상대처계획(EAP)과 같은 운영 체계, 매뉴얼, 의사결정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

다고 제언한다. 재난 대응은 결국 개별 시설이 아닌 '시스템'의 완성도로 귀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소로 그는 '예산 효율성'을 꼽는다.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투입해야 할 재정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방재 정책의 성패가 갈린다는 의미다. 김 부사장은 “모든 위험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김병렬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약력

〈학 력〉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수원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주)삼안, (1990년), (주)유신 (1991년)  
 (주)제일엔지니어링(1992년)  
 극동엔지니어링(주)(~2007년)  
 케이에스엔기술(주)(~2023년)  
 현) (주)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기 타〉

현) 방재협회 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 강사  
 (우수유출저감대책)  
 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수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상 훈〉

국토해양부장관 표창(2008년)  
 대통령 표창(2014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8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24년)



김병렬 부사장이 동성엔지니어링 수자원부가 가진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가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실제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다.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나아가 불필요한 복구 비용을 줄여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것.

김병렬 부사장에게 방재는 사명이다. 재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의 철학은, 기후위기 시대 방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2023년, 도약의 분기점… ‘기술’로 판을 바꾸다

동성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가 성장 궤도에 본격 진입한 시점은 2023년이다. 김병렬 부사장 합류와 함께 수자원2부가 신설되면서 조직은 단기간에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확장했다. 인력 보강을 비롯해 사업 전략과 실행 방식 전반이 재편된 시기였다.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에는 내부 인식 전환이 자리한다. 김 부사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지낸 김계조 고문이 합류하면서 방재 분야에 대한 조직 내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후 재해예방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동성엔지니어링의 성장 지표는 꾸준한상향 곡선을 그렸다. 수자원본부 인력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2년 74억 원에 머물렀던 수주액은 2023년 99억 원, 2024년 14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8위권에 안착했다. 현재 약 50명 규모로 운영되는 수자원본부는 전 부서 중 세 번째로 큰 수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부사장이 제시한 올해 목표는 150억 원, 회사 전체 수주액의 약 10% 수준이다.

그는 이 같은 성장의 배경을 ‘접근 방식의 전환’에서 찾는다. 과거 PQ(사전적격심사) 중심의 수주 구조에서 탈피해 기술을 앞세운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홍성군 재해예방사업 조감도. /사진=동성엔지니어링 제공

지역이 안고 있는 재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해결 과제'를 겨냥한 전략이다. 많은 지자체가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부사장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지역별 재해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저감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한 셈이다. 특히 기술 평가 비중이 높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에서 이러한 전략은 높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충남 홍성군 재해예방사업은 이 같은 접근법의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약 4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동성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고 있다.

프로젝트의 관건은 도심 하천을 덮고 있던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복개 구간이 사라질 경우 도심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해예방사업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제약도 존재했다.

해법은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자원 확보였다. 홍성군은 충청남도과 국토교통부 사업을 통해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체 주차장을 확보했고, 환경부 사업을 연계시켜 하천 복원과 함께 산책로·휴식 공간을 포함한 친수 공간 조성 계획을 완성했다. 방재와 도시 재생을 결합한 구조다.

김 부사장은 이 사업을 “도시 하천 정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한다. 그는 “단순한 치수 중심의 정비를 넘어 도시 구조 자체를 재편한 프로젝트였다”며 “안전성 확보와 공간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지방소멸과 재난 대응의 딜레마...차세대 리더도 양성해야

김 부사장이 현장 1선을 지키면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인구의 후퇴'다. 재해 취약 지역일수록 사람의 흔적이 빠르게 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장을 가보면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지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인식이다.



김병렬 부사장이 자신이 가진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력 수급 역시 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다. 토목공학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방재 설계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김 부사장은 "대학 현장에서도 토목공학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며 "방재 분야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지원자는 줄어들고, 그 부담이 기존 인력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동성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부사장 함유

---

**“ 모든 위험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이후 채용된 신입 인력들이 조직에 정착해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자원본부는 1부 25명, 2부 23명 등 약 50명 규모로 운영되며, 외형 확대와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그가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강조하는 키워드는 명확하다. '겸손'과 '자부심'이다. 김 부사장은 "엔지니어링 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이어 "끊임없는 학습과 현장 경험이 결국 엔지니어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36년을 보낸 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수자원본부를 이끌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비롯된 무게가 실린다.

그가 그리고 있는 조직의 모습은 기술력이 뛰어난 집단에 머물지 않는다. 높은 전문성과 함께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인 조직. 김병렬 부사장이 말하는 '좋은 조직'의 기준은 결국 기술과 사람, 그리고 공공성을 아우르는 데 있다.

#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향해... 동성엔지니어링, '사람'으로 그리는 TOP 10



동성엔지니어링 사옥 전경. /사진=동성엔지니어링

창립 35주년을 맞은 동성엔지니어링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꾸준한 성장 궤적을 그려온 종합 컨설턴트 기업이다. 1991년 출범 이후 3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경험으로 현재 약 730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중견 엔지니어링사로 자리 잡았다.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2015년 305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현재 1,137억 원을 넘어섰고, 수주 규모 역시 과거 300억 원 미만에서 2022년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하며 외형과 실적 모두에서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냈다. 특정 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르게 성과를 쌓아온 점이 이러한 성장의 기반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동성엔지니어링은 도로·구조·지반·터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토목 분야는 물론, 수자원·도시계획·상하수도·철도·환경·교통·안전진단·건설사업관리(CM)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쌓아 왔다. △교리교차로~터미널 간 도로확장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사업과 함께 방글라데시 카담라솔 교량 설계·감리, 온직천 개선복구사업 등 해외 및 방재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특정 분야의 편중 없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해온 것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동성엔지니어링은 업계 16위권 규모다.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TOP 10' 진입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 중심 사업을 넘어 수익 구조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중이다. 특히 환경 분야로의 확장이 눈에 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등 운영형 사업에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서는 한편, 동성엔지니어링·DS엔지니어링·동성환경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지는 '패밀리 체제'를 구축해 사업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설계 중심에서 운영·관리까지 아우르는 구조로의 진화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력에만 있지 않다. 기업문화 역시 차별화 요소다.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경영 방식을 통해 조직 내 동기부여를 높이고 있다. 구성원을 인력이 아닌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동성엔지니어링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의외로 단순하다. '사람'이다. 기술 중심 산업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 회사는 '건강한 회사', '좋은 회사'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인재 존중과 소통, 협력, 자율적 실행을 강조하는 비전 역시 이러한 철학을 뒷받침한다. 외형 성장과 사업 다각화,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 동성엔지니어링이 그리고 있는 'TOP 10'의 청사진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DPA**

# '26년도 방재안전직 공무원 간담회 활동

### □ 개요

- ◇ (일시/장소) '26. 1. 27.(화), 11시~/서울역 지하1층 공향철도 회의실
- ◇ (참 석 자) 총 14명 (지자체 방재안전직 등)

### □ 주요내용

- ◇ (간담회 주요내용)
  - (방기성 회장) 방재안전직렬 미스매칭 해소, 직렬 변경 건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NCS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 방재안전직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필요함
  - (방재안전직 A)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많은 참여를 위해 “방재안전직 워크숍” 개최를 비수기에 분기·지역별로 맞추어 추진요망
  - (방재안전직 B) 토목분야 외 전공한 방재직 공무원도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방재안전직 C) 방재직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채용확대(자격증 인정 확대 등) 및 활성화 필요하고 지방기초단체도 17개 시·도처럼 재난관리 부서 2개로 분리 확대 운영 필요함
  - (방재안전직 D)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지자체간의 협력, 재난관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참여 필요함
  - (방재안전직 E) 방재안전직의 처우 등 확보를 위해 방재안전직 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방재안전직 F)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추진 시 재난업무 3년이상 등 구체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방재안전직 공무원 간담회 주요 사진



간담회 개회



개회사



토론 1



토론 2



토론 3



기념사진

## 손녀와 쓱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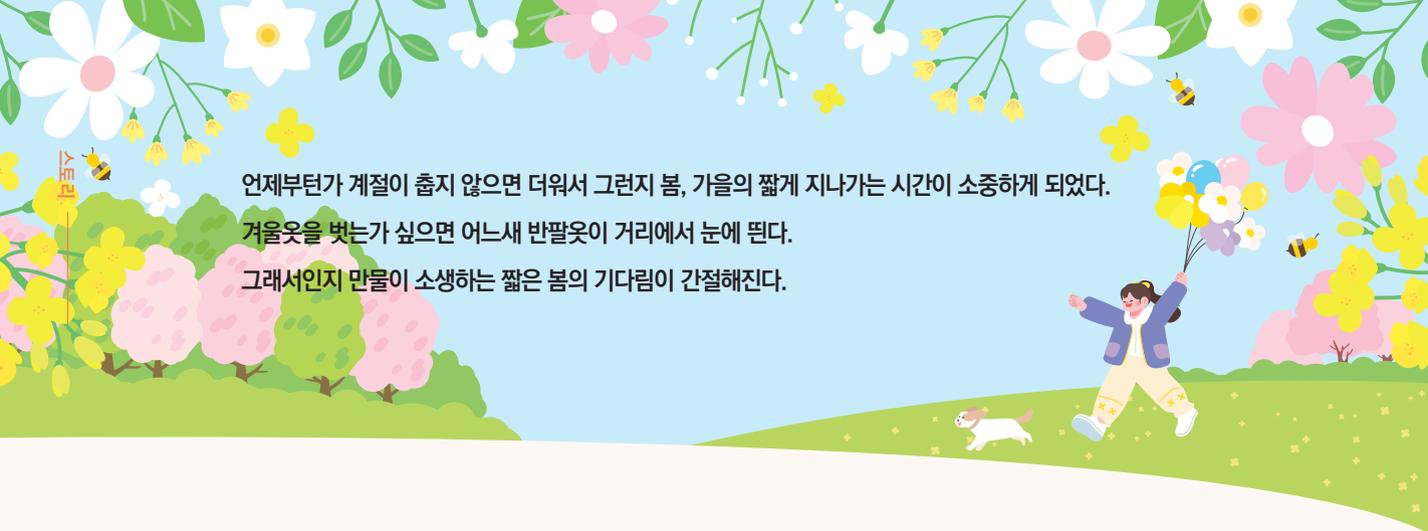


윤순섭  
한국수필가협회 작가

봄이란 어감은 입으로 살짝 소리 내어 보면 상큼함이 느껴진다. 따뜻한 햇살이 무거운 패딩위에 내리 찢니 봄이 가까이 옴을 느낄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검정색 패딩이 한 두개쯤은 갖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 있는 겨울옷을 드디어 벗는 계절이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와 더 반가운지 모른다.

우리집 마당에는 하루가 다르게 산수유, 매실나무의 새순이 통통하게 돋기 시작해 생명의 신비감이 든다. 트랙을 이리저리 거닐때면 아직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선화의 새싹을 밟을까 조심하게 된다. 마음은 이미 새봄 맛을 준비를 다했는데 가기 싫다며 버티고 있는 겨울을 등떠밀고 있는것이 요즘 날씨가. 절기 상으로는 벌써 우수가 지났건만 심술 부리듯 뜬금없이 불어 닥치는 추위로 조석으로는 옷속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수 없다. 그러나 찬바람 속에도 따스함은 숨어있어 금새 꽃망울이 터질것 같다. 수국을 좋아해서 잔뜩 심어 놓았는데 꽃필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이왕이면 붉은색 보다 잉크빛 나는 파란 수국을 보고 싶다.

예전엔 봄이 오면 1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젊어서는 먼곳으로 다니라는 말에 되도록이면 유럽쪽으로 갔다. 끝없이 펼쳐지는 셋노란 유채밭의 정경과 중세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 자연풍경은 1년을 기다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봄이 오면 항상 즐거운 여행이 연상된다. 그러나 봄여행도 코로나 이후로는 멈춰졌다. 이제는 장거리 비행이 힘들다며 다들 유럽은 안녕을 고해야 된다고 말한다. 정말 그말이 맞는것 같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유로운 국내여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봄 하면 그동안 다녔던 여러곳 여행지의 추억이 떠오른다.



언제부턴가 계절이 춥지 않으면 더워서 그런지 봄, 가을의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소중하게 되었다.

겨울옷을 벗는 게 싫으면 어느새 반팔옷이 거리에서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만물이 소생하는 짧은 봄의 기다림이 간절해진다.

봄이 되면 목적지 없는 여정을 상상하며 뭐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찾아보게 된다. 이것저것 계획도 세워보지만 잠깐이나마 봄을 느끼려면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이제는 계절이 여름반 겨울반이 된 것 같아 간절기의 봄은 순식간에 도망가 어영부영 하다가 낯설기 일쑤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온몸을 맡겨보면 이것 또한 삶의 즐거움이다. 나는 다양한 색의 단풍에 마음이 빼앗겨 가을을 좋아하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봄을 좋아한다. 마른 가지에 여러여리한 연두빛의 새싹이 나올때면 마치 젖내음이 풍기는 아기를 보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진다. 언제부턴가 계절이 춥지 않으면 더워서 그런지 봄, 가을의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소중하게 되었다. 겨울옷을 벗는 게 싫으면 어느새 반팔옷이 거리에서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만물이 소생하는 짧은 봄의 기다림이 간절해진다. 이때처럼 새순이 돋는 순간을 보기 위해 나무를 자세히 살펴 보거나 땅을 수시로 들여다 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자연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지하에서 숨죽여 있던 식물이 코끝 시리는 날씨에도 바깥 세상이 궁금해 살며시 얼굴을 내민다. 이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며 괜시리 남의 집 낮은 담장 넘어 마당을 들여다 보게 된다. 아직은 화려한 꽃밭은 아니지만 빼꼼히 올라오는 새싹들이 주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언젠가 부드러운 봄바람이 좋아서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한 적이 있다. 손녀가 사는 아파트의 넓은 정원에는

각양각색의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아직은 봄의 초입이여서인지 썰렁한 풍경이었지만 잘 정돈된 정원 한쪽에 가느막대기들이 꽃혀 있었다. 손녀는 그 나뭇가지들 중 하나에 자기 나무라며 "쑥쑥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봄이 오면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고 잎이 조금씩 달리더니 생명력 있게 잘 자라 주었다. 가끔씩 손녀와 함께 쑥쑥이를 보러 갔고 자라는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하였다. 허리에도 안 닿던 키 작은 작대기는 이름대로 쑥쑥 커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른의 키를 훌쩍 넘었다. 여름이 되면 초록 나뭇잎 아래로 그늘도 생길 정도로 우거졌다. 아마도 언 땅 속에서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크고 있었던 것 같다. 추위가 풀리는 봄이 되기 전부터 손녀와 다정히 쑥쑥이의 새싹 인사를 하기 위해 자주 산책하는 것이 둘만의 작은 행복이 되었다. 손녀의 예쁜 마음은 마치 새봄의 싱그러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손녀의 키가 할머니의 키를 넘을 때 까지 동행하며 쑥쑥이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소중한 기쁨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심신을 긴장하게 한다. 자연의 섭리로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일상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런 불편함 보다 봄 햇살과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봄날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다. **KDPA**

스토리

# 일본 4,100km 종단열차여행을 다녀와서



엄 관 용  
(주)경보기술단 대표

나는 토목 엔지니어로 약 40여 년의 사회생활을 해왔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문득 '은퇴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업무에 쫓겨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여행이었다.

여행의 방식으로는 평소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일본 기차여행을 선택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오송 등을 업무상 기차로 자주 오갔지만, 일본에서는 북쪽의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남쪽 끝 가고시마까지 약 4,100km를 종단하는 철도 여행을 계획했다. 7박 8일 동안 신칸센과 관광 재래열차를 이용해 일본 열도를 따라 내려가며 철로가 주는 평온한 감성을 느껴보고 싶었다.

더구나 아내의 지인인 두 쌍의 부부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여행은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여행의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삿포로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첫날 우리는 홋카이도의 맨 북쪽 끝, 사할린이 바라다보이는 최북단 소야미사키를 찾았다. 그곳에는 1983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사건을 기리는 추모탑이 세워져 있었고, 우리는 묵념으로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7일 동안 사용할 그린패스를 이용해 특급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설렘이었다. 홋카이도의 마지막 도시 하코다테에서는 일본 3대 야경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마주했다. 양쪽으로 바다를 끼고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은 야경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다.

이후 열차는 쓰가루 해협을 가로지르는 약 54km 길이의 세이칸 해저터널을 지나 혼슈의 북단 아오모리에 도착했다. 그 순간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듯 살아온 인생의 뒤편에서 비로소 여유로운 여행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길쭉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철도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기차역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센터,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일본을 이해하고 느끼기에는 기차여행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차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라는 첫 문장으로 유명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배경지 니가타를 지나 일본 본토 중앙에 위치한 나가노현으로 향했다.



일본 3대 야경 하코다테 전경



설국열차 전경

나가노현의 아마시로 맥반석 료칸에서는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안쪽을 향해 놓지만, 일본에서는 나갈 방향으로 신발을 돌려 놓는다. 손님이 외출할 때 신발이 자연스럽게 신기도록 배려하는 문화라고 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본 열차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에키벤’이라 불리는 역 도시락이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수천 가지의 도시락이 판매되고 있어 장거리 열차여행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다와 접한 지역이 많다 보니 해산물 도시락도 많았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아주 맛있지는 않았다. 생선은 다소 비릿했고, 덮밥 도시락은 밥이 남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마다 같이 동행한 부부 중 황여사란 분께서 챙겨온 한국 김이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음식문화의 차이도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열차 좌석은 자유석과 지정석으로 나뉘는데,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세토대교를 건널 때는 지정석 열차의 맨 앞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토목 엔지니어인 나에게 그 순간이 여행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책으로만 보던 현수교의 구조와 세부 형식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 오랜 세월 토목 기술자로 살아온 시간이 떠오르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세토대교 전경



일본 최북단 소야미사키 기념탑

이번 여행은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마다 기차역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듯 둘러보는 여행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을 모신 겐코지 사찰과 밤나무 숲, 소나무 분재로 유명한 리쓰린 공원 등을 느긋하게 걸으며 나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나가노역에서는 뜻밖의 따뜻한 만남도 있었다. 동행한 황여사가 에스페란토어로 알게 된 일본 지인이 두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호텔까지 찾아온 것이다.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도 일본 전통 복장을 하고 손수 만든 북주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왔다. 그 정성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슴에 오래 남았다.

여행 중 작은 에피소드도 많았다. 교토행 열차에서는 지정석이었음에도 부부가 떨어져 앉게 되었는데, 다음 역에서 탄 젊은 일본인에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자리 교환을 부탁했더니 흔쾌히 자리를 바꿔주었다. 감사의 의미로 한국 김을 나눠주었더니 무척 고마워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가나자와역에서 비가 내리던 밤, 우리는 이자카야에 들러 손짓과 발짓으로 주문을 하며 맥주와 사케를 마셨다. 어느 곳에서는 사케를 일본 소주로 잘못 주문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셨던 일도 있었다. 이런 작은 해프닝들은 웃음이 적어진 요즘 일상 속에서 큰 웃음을 선물해 주었다.

이번 열차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은 많지 않지만 창밖으로 지나가던 평화로운 풍경은 눈에 담았고, 함께 나눈 웃음과 추억은 가슴 깊이 담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충분히 아름답게 장식한 여행이었다.

이 여행을 계기로 나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이드가 있는 단체여행만 다녔던 내가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단체여행은 편리하지만 시간에 쫓기며 이동하다 보니 막상 돌아와 보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인천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물과 쌀이 유명한 설국의 고장 니가타를 자유여행지로 선택했다.

니가타 공항에 도착해 온천 송영버스를 타고 료칸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일본의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신발을 나가는 방향으로 놓아두는 문화였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정겨웠다.

이와무로 온천은 작은 마을이라 온천욕 외에는 낮에 할 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열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니가타 시내로 나가 보기로 했다. 숙소 셔틀버스를 타고 이와무로 역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이었다. 당황한 나는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고, 무인 티켓을 발권한 뒤 도착역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니가타역에 도착해 정산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순간, 나는 처음 자유여행의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진자온천지구 전경



마쿠라자키 재래선 열차

이와무로역에서 니가타역까지는 13개 역을 지나야 했다. 혹시 역을 지나칠까 봐 지도를 보며 역의 숫자를 하나씩 세어 갔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돌아갈 시간표와 승강장을 확인하고 느긋하게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는 지금도 기억 속에 진하게 남아 있다.

니가타 시내에서는 구글 지도를 보며 맛집과 카페를 찾아다녔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는 재미는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하루는 서쪽 출구로 나가 돈키호테와 카레집을 찾았고, 다음 날은 동쪽 출구로 나가 유명한 라멘집을 찾아갔다. 오후 두 시면 문을 닫는다는 작은 라멘집은 나이 지긋한 노인 세 분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추천해 준 세트 메뉴의 라멘과 일본 카레는 매우 맛있었다. 무엇보다 친절함 미소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은 이와무로역의 티켓 발권기가 고장 나 당황하기도 했지만, 스마트폰 번역기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꽤 기특한 순간이었다.

이틀 동안 같은 열차를 이용하다 보니 이제는 역 숫자를 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착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안내방송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자유여행이 주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유여행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일본은 철도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기차만으로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작은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철로를 따라 이어지는 또 다른 여행을 꿈꾸며, 첫 자유여행의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해 본다.

KDFA



[참고자료] 세트대교 사진, 일본 열차지도 - 한진관광 참고



### 재난안전기술 평가 제도 란?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 1. 5)시 사회재난 기술 포함하여 재난 전체(자연재난+사회재난)로 재난안전신기술 확대 심사 실시

### 추진경과

- + '05.1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 도입
- + '06.6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
- + '12.7월 : 조달청 PQ 심사 시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 '12.8월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
- + '13.11월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 + '14.1월 : 방재신기술 ‘NET’ 마크통합
- + '06~22년 :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 '23.1월 : 방재신기술 → “재난안전신기술”로 명칭 변경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23.1월 : 재난안전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신청대상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

#### “재난안전기술”이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재난안전기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3호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호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심사절차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 유효기간 연장심사



## 심사기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 신규·진보성 및 재난안전 분야 기술 해당 여부,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등 결정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신규·진보성 (70)	신규성(4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 2차 심사 : 기술의 우수성 및 신규·진보성 등 평가

구 분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우수성 (80)	기술의 성능 (30)	재난안전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재난안전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현장적용성 (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시장성(20)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신규·진보성 (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 되는 기술(신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 심사기준 (유효기간 연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활용실적(30)	활용건수 및 활용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10)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재난안전효과(20)	지정 후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방재 효과의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배점
	경제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안전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유지관리 편의성(10)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 정도에 따라 배점
	기술 개량·개선 노력(10)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가점(10)	해외활용실적 및 기술보급 노력 등에 따라 부여	

## 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

### ○ 'NET'신기술 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기술의 명칭과 유효(보호)기간을 표기하여 사용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 지정 5년, 유효기간 연장 최대 7년



### ○ 신기술 유효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 및 검증 시 보호기간 5년, 보호기간 연장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 신기술 제품 구매 및 활용 공사를 발주한 담당자는 신기술로 활용으로 인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동종분야의 신기술간 제한경쟁입찰 가능

### ○ PQ 점수 부여

+ 조달청 및 공공기관 PQ심사 시 방재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 신기술 우선 활용

+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 ○ 기타 지원혜택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신기술 단가 반영

# 주조식 지압판과 팽이판을 이용한 앵커 사면공법



지정번호	재난안전 신기술 제2023-4호		
기술명	주조식 지압판과 팽이판을 이용한 앵커 사면공법		
기술개발자	(주)청아건설 (대표: 신창섭)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30, 5층 502호 (구산동, 탑스존)
	충북개발공사 (대표: 이상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6층, 7층 (북문로3가)
	(주)한국종합기술 (대표: 김치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관동)
보호기간	2023. 01. 19. ~ 2028. 01. 18. (5년)		
홈페이지	<a href="http://www.bnl04.kr/">http://www.bnl04.kr/</a>		

## 1. 신기술의 내용

###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 (1) 범위

- 사면에 대한 앵커 보강기술과 관련하여 주물을 이용한 주조식 지압판과 침하 억제형 팽이판을 통해 주변 지반의 세굴 저감 및 유지관리성 향상 기술

#### (2) 내용

- 주조식 지압판과 침하 억제형 팽이판을 이용한 앵커 사면 보강기술
- 주조식 지압판과 팽이판을 활용하여 세굴 저감 및 유지관리성 향상 기술

## 나. 신기술의 특징

### (1) 소재 및 구조의 차별화

- 기존 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를 이용한 구성 및 구조에서 불연속부가 없는 일체형 구조물로 제품의 필수성능 (내구성, 재하성능등) 확보

### (2) 장기적 성능 유지 및 안정성 확보

- 우수에 의한 지압판 하부의 토사유실과 세굴, 침하로 인한 인장력손실을 예방하여 2차 재해를 줄이고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팽이판(Top plate) 설치]

### (3) 시공의 간편화 및 신속화

- 기존 중량 대비 약 5%로 경량화시켜 시공시 소형장비화 가능하여 작업공정을 간소화 및 시공의 신속화 (공기를 1/2단축)를 확보. (재해 위험성 감소 및 도로 통제기간 단축)

### (4) 소량생산 및 품질의 균질성 확보

- 수량에 관계없이 주물로 공장에서 일괄생산을 통한 균일한 품질확보 가능.

### (5) 지반에 따른 적용성

- 일반적인 토사 및 풍화토, 풍화암에 적용가능하며 특히 소규모의 응급복구공사나 기존 콘크리트 격자블럭이 설치된 사면의 보강공사에 유리함.

## 다. 신기술의 시공순서(작동방식)

순서	사진	공정	사용설비
1		천공단계	크롤러 드릴
2		팽이판 및 지압판 거치	크레인
3		주입단계	그라우팅 펌프
4		인장단계	유압식 실린더

##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 가) 활용실적

발주처	공사명	소재지	계약일
경상남도	신원~생초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상남도 산청군	2018년
부산광역시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2년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당진대전선 30.4K(대전) 깎기비탈면 보완공사	당진대전선고속도로 내	2022년

### 나) 향후 활용전망

- 본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저감을 위해 차별화된 소재 및 경량화 제품을 기반으로 신속 및 응급사면 복구 등 국내·외 높은 활용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된다.

## 3. 기술 문의처

회사명	소속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주)청아건설	공무이사	김영곤	chagip@hanmail.net	010-5769-0038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6년) ❖❖

### ❖ 재해별 신기술 지정현황 (총 지정건수)

구분	총 계 (335건)								
	소계	내수	하천	사면지반	지진	해안	대설	낙뢰	폭염
자연재난	310	105	92	48	42	6	6	9	2
사회재난	소계	안전관리	교통사고	화재	붕괴	미세먼지	안전사고	-	-
	25	9	3	6	3	1	3		

### ❖ 25년도 신규 지정현황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1	제2025-1-1호	(주)은성엔지니어링	스마트 폰 및 위치 경보 기능 기반 배전반의 통전 위험 알림 기술	'30.1.6	기타
2	제2025-2호	(주)하신건설 (주)바우테크	3D Textile(입체섬유)을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수로 구조물의 보수 공법	'30.1.13	내수재해
3	제2025-3호	신신이엔지(주) 태성엔텍(주) 엔에스하이드로(주)	탈부착이 용이한 수중펌프가 적용된 펌프수문 및 일체형펌프	'30.2.9	내수재해
4	제2025-4호	삼진공업(주)	이송압력 유지부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	'30.2.16	내수재해
5	제2025-5호	(주)트라움목조주택	L-tie를 사용한 경골전단벽 수평하중저항 및 내진성능 상향 기술	'30.2.27	지진재해
6	제2025-6호	현대제철(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해전산업(주)	다단식 횡방향 슬라이딩 차수문을 이용한 침수방지 기술	'30.3.5	내수재해
7	제2025-7호	(주)서영산업	행거장치와 사이드레일이 결합된 케이블 트레이 진동 저감용 지진재해 예방기술	'30.3.17	지진재해
8	제2025-8호	제이케이 엔지니어링(주)	태양광발전장치에 적용한 모듈 이탈방지 및 이상위치검출 기술	'30.3.17	안전관리
9	제2025-9호	(주)아이엔텍	협잡물 끼임 제거능력 향상을 위한 후면 레이크 및 공압 노즐을 장착한 로터리 제진기	'30.3.20	내수재해
10	제2025-10호	(주)비전테크	침수환경에서 누설전류 포집에 의한 저압 전기설비 운전의 연속성 확보 기술	'30.3.25	낙뢰재해
11	제2025-11호	케이에스티이엔씨(주)	WB접합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	'30.3.27	지진재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6년) ❖❖❖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12	제2025-12호	제이엠아이(주)	수중모터펌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와류 저감장치 및 점검의 용이성을 위한 케이블 경량커버를 적용한 기술	'30.4.6	내수재해
13	제2025-13호	(주)동산산업건설	표면 조도계수 저감을 통한 하수관거 보수보강공법	'30.4.21	내수재해
14	제2025-14호	(주)오성기공	롤러를 활용한 레이크 지지와 센서에 의한 정위치 정지장치를 적용한 제진기	'30.4.21	내수재해
15	제2025-15호	(주)대우건설 (주)정호	선형 강재 급속 체결을 통한 철근콘크리트 기둥 내진보강공법	'30.5.6	지진재해
16	제2025-16호	(주)미래로택	멀티포인트 레이더 유속계를 활용한 실시간 자동 하천 유속 측정 기술	'30.5.11	하천재해
17	제2025-17호	지엘이앤씨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설치·해체 작업자 보호 예방기술	'30.5.19	안전관리
18	제2025-18호	강산기술단(주), 인프라혁신(주), (주)한울씨엔비, (주)제이씨씨건설	디지털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중보강구조물의 정밀시공을 유도하는 측정 및 시공 기술	'30.6.8	안전관리
19	제2025-19호 (25.6.23)	아이비이앤씨(주), 코오롱글로벌(주), 디엘건설(주), 에이치엘디 앤아이한라(주)	강판 매입형 PHC파일을 활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30.6.22	사면지반 재해
20	제2025-20호 (25.7.8)	범호정공	내진서포트행거와 내진연결조인트를 케이블트레이에 적용시킨 지진 재해 예방 기술	'30.7.7	지진재해
21	제2025-21호 (25.7.11)	(주)아이콘텍이앤씨, (주)동성엔지니어링, (주)동평건설엔지니어링	굴절 커플러를 이용한 깎기비탈면 판별식 옹벽 공법	'30.7.10	사면지반 재해
22	제2025-22호 (25.8.6)	스마트이앤씨(주), (주)온누리로	인장형 탄성 네트워크와 장력센서 기반 스마트 토석류 방호 재난 경보 기술	'30.8.5	사면지반 재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6년) ❖❖❖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23	제2025-23호 (25.9.15)	다스코(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유원건설턴트(주)	공압원리를 활용하여 신속한 개폐가 가능한 배연구를 갖춘 방음터널 재난안전 기술 및 시설	'30.9.14	화재
24	제2025-24호 (25.10.24)	(주)새움	IoT기반 능동형 다목적 스마트 쉘터 구성을 통한 미세먼지 및 냉난방 원격감시제어 기술	'30.10.23	미세먼지
25	제2025-25호 (25.11.3)	엔에스하이드로(주)	가이드베인 보호캡이 적용된 수중 축·사류 펌프	'30.11.2	내수재해
26	제2025-26호 (25.11.13)	해전산업(주)	슬라이딩 락킹 시스템을 적용한 축소 격납형 기립식 차수벽 기술	'30.11.12	해안재해
27	제2025-27호 (25.11.24)	안덕테크(주), 유윤건설(주), (주)평장씨지알	절삭면을 계단형으로 절삭이 가능한 일체형 절삭장비와 접이식 가변지지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맨홀 보수기술	'30.11.23	기타 (안전사고)
28	제2025-28호 (25.12.5)	보일씨앤씨(주), (주)봉희건설	반전속도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보강 튜브 이송장치와 분리된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30.12.4	내수재해
29	제2025-29호 (25.12.24)	(주)한국수안	모듈식 부품의 조립결합방식을 적용한 내부 이동 통로가 있는 박스형 플라스틱 소규모 저류조 공법	'30.12.23	내수재해

※ 재난안전신기술의 자세한 기술 내용은 QR코드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안내



## 1.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제도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 평가위원 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 3. 평가위원 수행업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연장 취소 심사

## 4. 문의 및 제출처

-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 + 평가심사위원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 담당 : 연구기술실 김진호 팀장
- + TEL : 02-6952-9388                      + FAX : 02-3472-8064
- + E-mail : kjh85@kodipa.or.kr

## 5. 제출 서류

- 증명서류(각 1부, 사본 제출(PDF 제출) 가능)
  1.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3. 최종 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 연수 증명 위함)
  5. 그 밖에 전문가 등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분야 자격증”이란 신기술 전문분야 분류표(붙임3)와 관련된 자격증
-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자격별 필수 제출 서류
  - ▶ 아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증명서류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2,4)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 4)
    4.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4)
    5.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증명서류 4)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기관장이 인정한 자 (증명서류 3,4,5)

# 한국방재협회 회원동정 및 신규회원

## ○ 신규 회원가입 : 개인회원 61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1	평생	이창환	(주)건화	이사	20260101
2	평생	김대현	(주)케이씨아이	전무	20260105
3	평생	이건일	(주)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	20260108
4	개인	안경환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위원	20260112
5	개인	김동건	부산사하구청	방재안전서기보	20260112
6	평생	박재용	(주)리버앤틱	전무	20260113
7	평생	김수근	한국수자원공사	위원	20260113
8	개인	배상인	신화기술	부회장	20260113
9	개인	박동길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이사	20260114
10	평생	김종천	하존이앤씨(주)	이사	20260114
11	개인	이강복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20260115
12	평생	주낙영			20260115
13	개인	조원필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전무	20260116
14	개인	조준희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이사	20260116
15	개인	한창용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전무	20260116
16	개인	조충영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사장	20260116
17	개인	신명옥	함평군청	팀장	20260120
18	평생	황윤희	한맥기술	대리	20260120
19	개인	박찬주	(주)케이씨아이	전무	20260120
20	개인	차봉기	황성군청	복구지원팀장	20260120
21	개인	김광양	천진엔지니어링		20260120
22	개인	김상룡	(주)정엔지니어링	차장	20260121
23	개인	박재록	부산대학교	전임연구원	20260121
24	개인	김철호	(주)이도	상무	20260121
25	개인	박승신	(주)한맥기술	부사장	20260121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26	개인	김준기	동일기술공사	부회장	20260122
27	평생	김산	(주)네오	상무	20260122
28	평생	안진호	상현엔지니어링(주)	사장	20260122
29	평생	진기욱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20260124
30	개인	김현호	(주)수성이앤씨건축사사무소	사원	20260124
31	개인	유충근	산림기술사사무소 명산		20260125
32	개인	최홍서	(주)세종엔지니어링	대표	20260126
33	평생	나상현	남광토건 주식회사	고문	20260126
34	개인	정상민	주식회사 건영이앤씨	전무	20260126
35	개인	김현문	바셈엔지니어링	이사	20260127
36	개인	서금열	건일이엔지(주)	부사장	20260128
37	개인	이숙	웅진종합건설(주)	부장	20260127
38	평생	유제호	한국수자원공사	처장	20260128
39	개인	배현석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20260128
40	개인	한동우	(주)관보종합기술단	부사장	20260129
41	개인	정배희	청양군청	팀장	20260129
42	개인	김일중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원장	20260130
43	평생	류진환	(주)지비이엔지	상무	20260203
44	개인	황형구	영양군청	재난방재팀장	20260204
45	개인	신우식	DL이앤씨	대리	20260204
46	평생	심성규	(주)서하기술단	전무	20260204
47	평생	박경언	계룡건설산업	부장	20260206
48	평생	민경준	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20260206
49	개인	양정아	강토엔지니어링	주임	20260210
50	개인	김주환	(주)예당엔지니어링		20260210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51	개인	김은정	(유)대도엔지니어링	차장	20260210
52	개인	신태성	(주)태조엔지니어링	부사장	20260212
53	평생	장인수	영진엔지니어링	부회장	20260213
54	평생	전재구	자이에스앤디(주)	책임	20260220
55	평생	최병철	(주)유신	상무	20260220
56	개인	송준혁	인천광역시청	주무관	20260220
57	개인	김갑중	논산시청	팀장	20260223
58	개인	황상진	국민안전지원협회		20260225
59	개인	정용호	대구교통공사	부장	20260226
60	평생	김보환	남산엔지니어링	사장	20260227
61	평생	김승래	(주)동산산업건설	부장	20260227

○ 단체회원 : 4개사

연번	단체명	대표자	가입일	비고
1	주식회사 에이치알이앤에스	윤성섭	20260114	
2	로드텍	오승민	20260120	
3	(주)에당엔지니어링	박철민	20260128	
4	(주)평강산업개발	변문수	20260206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 교육시간

- 총 150시간
- 주간반(15일)  
09:00 ~ 18:00
- 야간반(30일)  
18:00 ~ 22:00

## 교육비

- 145만원  
(교재비 15만원 별도)
- \* 공무원, 대학생 교육비  
할인 및 교재제공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I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급경사지 재해예방 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우수유출저감대책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 침수흔적도 작성

## 교육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 해당자

-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보유자  
(토질및기초, 수자원,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및교통, 농어업토목, 지질및지반, 산림, 상·하수도, 건설안전, 해안및항만, 측량및지형공간, 건축공학, 도시계획, 건설안전분야 등)
- 기술직 15년 이상, 재난관리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기술사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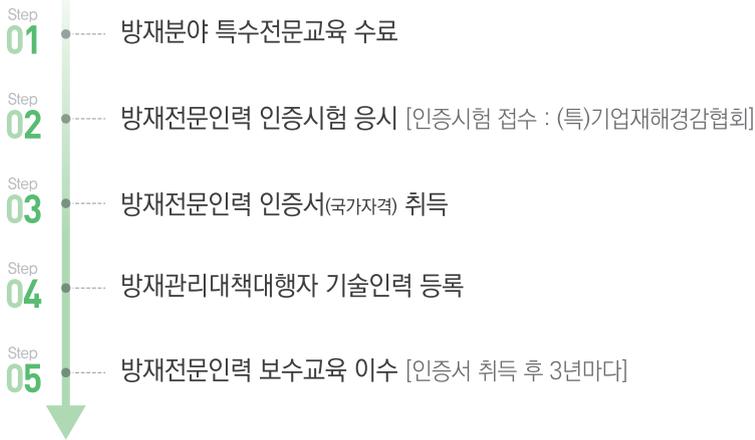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오프라인 교육</li> <li>※ 전문과정 개강일 기준 일주일 전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교육</li> <li>※ 시간이수제 신청 가능</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과 방재</li> <li>- 재난발생 및 대응 사례</li> <li>- 한국의 기상여건과 재해특성</li> <li>- 재난심리의 이해</li> <li>- 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이해 등</li> </ul> </li> <li>• 재난관리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관리체계 및 정책추진방향</li> <li>-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li> <li>- 자연재해대책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li> <li>- 재해영향평가</li> <li>- 풍수해 비상대처계획</li> <li>- 침수흔적도</li> <li>- 소규모공공시설</li> <li>- 급경사지 재해예방</li> </ul> </li> <li>•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li> <li>- 우수유출저감대책</li> <li>- 재해복구사업</li> <li>- 소하천 정비계획</li> </ul> </li> </ul>

## 수강절차



## 인증서 취득 및 활용 절차



## 기대효과

- 0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등록 가능(8분야)
- 02 중앙·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위원으로 활동 가능
- 03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등 방재전문가로서 활동 가능
- 04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등 방재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 상시학습 인정(공무원), 기술사교육 학점 인정



**KDPA**  
Together for  
Safe Korea



#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4항(방재전문교육과정)

## 교육시간

· 2일, 총 16시간  
09:00 ~ 18:00

## 교육비

· 22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 교육대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

### 보수교육 관리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별표3의3)

#### 최초 보수교육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보수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서 제외

## 교육내용

방재전문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 및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 3개 과정 중 어느 과정을 이수해도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로 동일하게 인정

구분	종합과정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10개 분야 실무</li> <li>· 토의/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li> <li>· 재해영향평가 실무 - 작성실무, 사후관리, 사례분석</li> <li>· 토의/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li> <li>·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실무 - 작성실무,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사례분석</li> <li>· 토의/평가</li> </ul>

## 수강절차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연·사회재난에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하고 피해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컨설팅,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 교육시간

09:00 ~ 17:00

- 실무 : 5일, 35시간
- 대행 : 10일, 70시간
- 인증평가 : 5일, 35시간

## 교육비

- 실무 : 60만원
- 대행 : 120만원
- 인증평가 : 60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난 발생 시 기업 스스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교육대상

- 방재,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관련 담당 및 관리자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득 희망자

## 교육내용

구분	실무	대행	인증평가
교육목표	· 사내 재해경감활동 실무자 양성	·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 양성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위원 양성
주요내용	·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이해 · 업무영향분석 · 위험평가 및 분석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이해 · 훈련 및 테스트 ·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 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 업무영향분석2 · 위험평가 및 분석2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실행 ·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실습	· 인증제도의 이해 · 인증심사기준 · 심사프로세스 · 심사실습

## 기대효과

실무	대행	인증평가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 ③ 기업재난관리사(실무) 자격 취득 ④ 사내 재해경감활동 업무 수행(업무담당자)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실무 자격취득 하고, 대행과정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대행) 자격 취득 ④ 대행자 등록(최소 6명 인력 확보) 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업무 수행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대행 자격취득 하고, 인증평가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인증) 자격 취득 ④ 인증평가 대행기관 지정 (최소 5명 인력 확보) ⑤ 우수기업 인증

## 수강절차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교육시간

- 실무자 : 2일, 14시간
- 관리자 : 1일, 7시간
- 매뉴얼과정 : 3일, 21시간

## 교육비

- 실무자 : 22만원
  - 관리자 : 11만원
  - 매뉴얼 : 30만원
-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 국가재난관리 정책의 이해 및 재난안전관리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중단없는 공공서비스 및 행정업무 능력 향상

## 기본방향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영	위기대응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업무 기본개념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li> <li>· 안전점검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의 예방·대비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매뉴얼(표준, 실무, 행동) 및 정책방향 이해</li> <li>·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사례별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반영</li> <li>·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중단없는 공공기관 기능 유지</li> </ul>

##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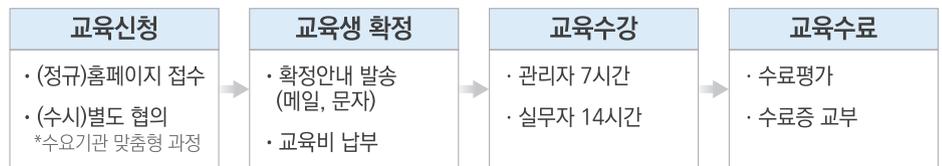
- 실무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직원
- 관리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선택과정
	실무자과정 2일, 14시간	관리자과정 1일, 7시간	매뉴얼과정 3일, 21시간
<b>교육목표</b>	재난관리 실무능력 배양	통합 재난상황관리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이해 및 작성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체계의 이해</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li> <li>· 통합재난상황관리 실무</li> <li>·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li> <li>·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매뉴얼 정책 이해</li> <li>· 재난유형별 대응사례를 통한 위기관리 실무능력 배양</li> <li>·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능력 향상</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 교육시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일, 7시간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일, 21시간

## 교육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0만원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0만원
-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 재해구호 정책의 이해 및 체계적인 재해구호 활동 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재난 피해자 구호활동 실무 전반의 이해

## 교육대상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단체, 지역자율방재단원, 새마을운동중앙회원 등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선택과정 (실무자, 관리자)
	1일, 7시간	3일, 21시간
교육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 절차의 이해 및 재해구호 활동 실무능력 향상</li> <li>· 재해구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li> <li>· 재난현장 협업능력 향상</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일반</li> <li>· 재해구호전문인력의 임무와 역할</li> <li>· 재난심리의 이해</li> <li>·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의 실무</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연재난안전”분야의 안전역량을 위한 교육

\* 법적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제13조

## 교육시간

· 1일, 4시간

## 교육비

· 5만원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등) 이해 및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습득

## 교육대상

청소년기 또는 청년·성인기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 운영분야

- 안전분야/영역 : 자연재난안전
- 안전교육 범위 :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안전분야	안전영역	안전교육 범위
자연재난안전	자연재난안전	(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기후성재난) 홍수, 태풍, 미세먼지·황사,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지질성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 교육내용

구분	자연재난안전 행동요령 과정	자연재난안전 대응요령 과정
교육목표	자연재난의 이해 및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습득	자연재해 유형별 대처방안 및 재난구호활동 습득
교육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직장인, 공무원, 자원봉사단원 등
주요내용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의 이해 및 특성</li> <li>·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li> <li>· 응급처치 및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 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유형별 대처방안</li> <li>· 재해구호활동의 이해</li> <li>· 재난유형별 대피 및 재해구호활동 실습</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자율방재단 등 지자체 위탁교육

(재난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기관간 소통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32조의 14~15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협업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 교육시간

· 별도 협의

## 교육비

· 별도 협의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 교육시간 및 교육비 별도 협의

## 교육목적

소통을 바탕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업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증진

##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 교육내용

구분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교육</li> <li>· 재난안전관련 현장견학</li> <li>· 힐링 및 체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li> <li>· 자원봉사의 이해 및 응급처치 실무</li> <li>· 재난안전체험 및 실습</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법적근거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0조

## 교육시간

· 5일, 총 40시간

## 교육비

· 60만원

## 교육목적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육성 생태계 구축

## 교육대상

재난안전산업 관련 종사자, 종사희망자 등

## 교육내용

구분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종사희망자 실무교육
교육목표	재난안전산업(기술, 제품, 장비, 시설 등)의 실무 이해를 통한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역량 향상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산업진흥법과 제도의 이해</li> <li>· 재난안전산업의 이해</li> <li>·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li> <li>· 재난안전관련 서비스 개발</li> <li>· 4차 산업과 재난안전산업의 융복합 사례</li> </ul>

## 수강절차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구 분		교육일정	교육장소(지역)	교육인원	비 고
총 14회				700	· 주간(09:00~18:00, 15일간) · 야간(18:00~20:00, 30일간)
제1회	야간	2.25 ~ 4.8	영천	50	
제2회	주간	3.9 ~ 3.27	서울	50	
제3회	야간	3.16 ~ 4.24	부산	50	
제4회	야간	4.13 ~ 5.28	서울	50	
제5회	주간	4.20 ~ 5.13	서울	50	
제6회	야간	4.27 ~ 6.12	세종	50	
제7회	야간	6.8 ~ 7.17	전주	50	
제8회	주간	6.15 ~ 7.3	서울	50	
제9회	야간	8.10 ~ 9.21	춘천	50	
제10회	야간	8.19 ~ 10.2	대구	50	
제11회	주간	8.31 ~ 9.18	서울	50	
제12회	야간	10.12 ~ 11.20	세종	50	
제13회	야간	10.19 ~ 11.27	서울	50	
제14회	주간	11.9 ~ 11.27	서울	50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회차	교육일자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1.29 ~ 1.30	50	실시간 원격	
제2회	2.5 ~ 2.6	50	서울	
제3회	2.26 ~ 2.27	50	실시간 원격	
제4회	3.5 ~ 3.6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5회	3.12 ~ 3.13	50	실시간 원격	
제6회	3.25 ~ 3.26	50	세종	
제7회	4.2 ~ 4.3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8회	4.8 ~ 4.9	50	부산	
제9회	4.23 ~ 4.24	50	실시간 원격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10회	5.14 ~ 5.15	50	서울	
제11회	5.21 ~ 5.22	50	실시간 원격	
제12회	6.11 ~ 6.12	50	서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제13회	6.18 ~ 6.19	50	실시간 원격	
제14회	6.24 ~ 6.25	50	세종	
제15회	7.9 ~ 7.10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회차	교육일자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6회	7.16 ~ 7.17	50	실시간 원격	
제17회	8.13 ~ 8.14	50	서울	
제18회	8.20 ~ 8.21	50	서울	
제19회	8.27 ~ 8.28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20회	9.10 ~ 9.11	50	실시간 원격	
제21회	9.16 ~ 9.17	50	세종	
제22회	10.15 ~ 10.16	50	서울	
제23회	10.22 ~ 10.23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24회	10.28 ~ 10.29	50	광주	
제25회	11.5 ~ 11.6	50	서울	
제26회	11.12 ~ 11.13	50	실시간 원격	
제27회	11.18 ~ 11.19	50	세종	
제28회	12.3 ~ 12.4	50	서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제29회	12.10 ~ 12.11	50	서울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제30회	12.17 ~ 12.18	50	실시간 원격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

#### + 실무과정

회차	교육일자	교육일수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3.30~4.3	5일	20	서울	
제2회	4.13~4.17	5일	20	실시간 원격	Zoom 활용
제3회	5.18~5.22	5일	20	서울	
제4회	6.8~6.12	5일	20	실시간 원격	Zoom 활용

※ '26년 7월부터 기업재난관리사 전문교육 개편으로 인해 기존 실무, 대행분야가 "계획관리" 분야로 통합됩니다.  
 계획관리분야 교육일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획관리과정

회차	교육일자	교육일수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9.14~9.22	7일	20	실시간 원격	Zoom 활용
제2회	10.12~10.20	7일	20		
제3회	11.16~11.24	7일	20	실시간 원격	Zoom 활용

#### + 인증평가과정

회차	교육일자	교육일수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11.2~11.6	5일	20	실시간원격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회차	교육일자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2.10~2.11	50	실시간 원격	
제2회	3.10~3.11	50	실시간 원격	
제3회	4.7~4.8	50	실시간 원격	
제4회	5.12~5.13	50	실시간 원격	
제5회	6.1~6.2	50	서울	
제6회	6.23~6.24	50	실시간 원격	
제7회	7.7~7.8	50	실시간 원격	
제8회	8.25~8.26	50	실시간 원격	
제9회	9.29~9.30	50	실시간 원격	
제10회	10.13~10.14	50	실시간 원격	
제11회	10.29~10.30	50	서울	
제12회	11.10~11.11	50	실시간 원격	
제13회	12.1~12.2	50	실시간 원격	
제14회	12.8~12.9	50	실시간 원격	

※ 관리자 1일(7시간) / 실무자 2일(14시간)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 + 실무자/기본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4.16	7시간	40	서울	
제2회	9.3	7시간	40	서울	
제3회	12.17	7시간	40	서울	

#### + 관리자/기본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2.12	7시간	40	서울	
제2회	7.23	7시간	40	서울	
제3회	11.26	7시간	40	서울	

#### + 실무자/전문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5.26~5.28	21시간	40	서울	

#### + 관리자/전문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10.20~10.22	21시간	40	서울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교육일정 계획(안)

###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 + 자연재난안전 행동요령 과정(청소년기)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2.13	4시간	20	서울	
제2회	6.5	4시간	20	서울	
제3회	10.2	4시간	20	서울	

#### + 자연재난안전 대응요령 과정(청년기/성인기)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4.3	4시간	20	서울	
제2회	8.7	4시간	20	서울	
제3회	12.17	4시간	20	서울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 + 특화과정

회차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정원	교육장소	비고
제1회	4.15	7시간	20	서울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안내

## ○ 한국방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 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 단체회원 : 방재관리대책대행사,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위원 추천
- 풍수해 등 재해발생 조사와 관련학술 연구용역업무 참여 및 지원
-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및 지원
-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및 협회 자문위원회 참여
- 정기간행물 “방재저널” 우송 및 세미나·워크숍 무료초청
-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재난안전종사자, 기업재난관리사) 수강료 할인
- 홈페이지 내 방재·재난 최신 정보 및 자료 공유 게시판 제공

## ○ 회원가입 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odipa.or.kr) 「회원가입」 탭에서 원하시는 회원(개인, 단체, 특별)을 클릭하여 작성 후 “가입”을 눌러주시고, 아래 계좌 또는 지로용지(요구시 송부)로 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 (우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T. 02-3472-8063, F. 02-3472-8064, E-mail : master@kodipa.or.kr)
- 회비입금계좌 : 기업은행 062-061676-04-016 (예금주 : 한국방재협회)

## ○ 회비 안내

회원	구분		년회비
개인회원	개인회원(매년 연회비 납부)		30,000원
	평생회원(연회비 없음)		300,000원
단체회원	특급(상근인력 1,000명 이상)		2,000,000원
	1급(상근인력 1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000원
	2급(상근인력 100명 미만)		500,000원
특별회원	광역자치단체(시·도)		3,000,000원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2,000,000원
		인구 50만 미만	1,000,000원
	재난관리책임기관		2,000,000원
	기타단체(지방공기업 등)		1,000,000원

# 방재저널 독자 기고 안내

구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방재저널은 국내 유일의 방재관련 종합 전문지로 한국방재협회 회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방재분야 이슈에 관해 여러분의 칼럼, 정책 소개(제안), 산업과 기술, 제도 개선 등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고안내

- 원고규격 : A4, HWP 파일 (양식 별첨), 4페이지 내외
- 주제 및 내용 : [자유주제] 오피니언, 회원광장(칼럼), 스토리(수필) 등
- 제출기한 : '26년 연중 제출, ※ 격월 발간 ('26년 홀수월)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master@kodipa.or.kr (김진호 팀장, 02-3472-8063)  
※ 채택되신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투고하신 글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고자는 반드시 성명, 소속,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기재 바랍니다.

## 구독자 설문조사 안내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재저널을 구독하며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은 방재저널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2026년 방재저널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재저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한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방재저널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신기술(NET)  
복합영상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제2024-3호



# 산불!

빨리 발견해야, 빨리 끕니다.

## 1분만 빨랐어도...

빠른 발견이 우리의 **산**을 살립니다.

발견이 1분 늦으면 **산불** 1km이상 더 확산됩니다.

## 눈으로만 보는 카메라는 떠나라!!!

감시만 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AI 복합영상 기술로 **산불**을 신속히 자동·무인 감지하고 통보합니다.

